

네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믿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성서신애

정기 간행물 구로 라 00095

손 현 섭 편집

제519호

2024년 12월

가을 전국집회 소감	손 현 섭	3
신약성서 번역본(행 3:14-26)	전 준 덕	4
기독교 신앙과 신앙인에 관하여	한 병 덕	13
에베소서 읽기(7)	손 현 섭	28
시편 2편(2)	최 정 일	36
예수전(202)	김 형 철 역	58
만화로 보는 한 줄 성경	메 나 리	64
이런 일 저런 일	편 집 자	66

성서신애사

가을집회 소감

손 현 섭

보고 싶은 분들을 다시 만난다는 설렘으로 기도하며 준비하였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해주셔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알게 하시고 깨닫는 집회가 되길 말이다

당일 아침 일찍 집을 나선 덕분에 무사히 시간 안에 도착하여 사전 점검을 할 수 있었다. 사실은 농업환경원 측이 일주일 전 갑자기 식사 불가를 통보하여 크게 당황하였다. 홍성집회의 배지현 선생을 비롯한 여러분이 동분서주 뛰며 해결한 덕분에 맛있는 식사가 차려졌다.

이번에는 봄 집회 후에 나온 의견을 반영하여 강의 수를 줄이고 휴식시간도 늘리는 등 좀 여유로운 일정이었다. 다행히도 모두 다 천천히 진행한 이번 일정이 부담스럽지 않고 강의 내용에 집중할 수 있었다고 말씀해주어서 감사했다. 어떤 분들은 참석자가 대부분 고령인 점을 생각하면 오히려 더 강의 수를 줄여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있어 앞으로의 운영을 더 고민해봐야 할 것 같다.

내년 봄 집회는 일본무교회인의 한국방문과 겹쳐, 10여 명의 일본 교우가 함께 참여할 예정이다. 그중 한 분의 강의도 계획하고 있다. 멀리서 오는 같은 신앙의 동지를 만나는 기쁨을 여러분이 함께 누리시기를 기도한다. 더구나 우리의 나이도 많아지고 인원수도 감소하는 요즘이 아닌가. 이럴수록 만남이 더 소중하고 필요한 건 두말할 나위가 없다.

내년 4월 마지막 주말(26일 14:00 시작, 27일 15:00 종료)은 시간을 내어 홍성으로 와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손현섭)

신약성서 번역본

(사도행전 3:14-26)

전 준 덕

14절 : ὑμεῖς δὲ τὸν ἅγιον καὶ δίκαιον ἠρνήσασθε καὶ ἠτήσασθε
ἄνδρα φονέα χαρισθῆναι ὑμῖν,

사역 : 그리고 여러분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을 거절하였으며 오히려 살인자를 여러분에게 놓아주기를 간구하였소.

주) 1. ἠρνήσασθε : αἰτέω(단축동사)의 제1과, 중간, 직설, 복, 2인칭.
(3:2)

2. φονέα : φονεύς(살인자)의 제3변화 명사에 속한 남성명사의 단, 대격.

3. χαρισθῆναι : χαρίζομαι(거져주다, 값없이 주다, 친절을 베풀다, 은혜를 주다, 용서하다)라는 dep동사의 제1과, 수동, 부정사.

15절 : τὸν δὲ ἀρχηγὸν τῆς ζωῆς ἀπεκτείνετε· ὃν ὁ θεὸς ἤγειρεν
ἐκ νεκρῶν, οὗ ἡμεῖς μάρτυρές ἐσμεν.

사역 : 그래서 여러분은 생명의 왕되신 분을 죽였지만, 하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분을 살렸소이다. 우리는 이분에 대해 증인들입니다.

주) 1. ἀρχηγόν : ἀρχηγός(ἀρχή+ἄγω의 합성어) (지도자, 군주, 왕, 창설자, 창시자, 설립자)의 제2변화 명사에 속한 남성명사의 단, 대격.

2. ἀπεκτείνετε : ἀπεκτείνω(ἀπό+κτείνω의 합성동사 및 비음동사) (죽이다, 사형하다, 말살하다, 파괴하다)라는 동사의 제1과, 능동, 직설, 복, 2인칭.

3. νεκρῶν : νεκρός(죽은, 생명 없는)의 제1, 제2변화 형용사에 속한, 남, 복, 소유격.

16절 : καὶ ἐπὶ τῇ πίστει τοῦ ὀνόματος αὐτοῦ τοῦτον ὃν θεωρεῖτε καὶ οἶδατε ἐστερέωσεν τὸ ὄνομα αὐτοῦ· καὶ ἡ πίστις ἡ δι' αὐτοῦ ἔδωκεν αὐτῷ τὴν ὀλοκληρίαν ταύτην ἀπέναντι πάντων ὡμῶν.

사역 : 자 여러분 그분의 이름을 믿었기 때문에, 그분을 보고 알게 되었으며 그분의 이름이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이제 예수스님에 의해 일어난 믿음이 여러분 모든 사람 앞에서 이런 놀라운 일을 저 환자에게 일어났소이다(나타났소이다).

주) 1. πίστει : πίστις(믿음, 신뢰, 신임, 신실, 약속, 증거, 보증, 담보, 서약, 확신, 내용, 신앙의 교리, 신앙의 자유, 힘)의 제3변화 명사에 속한 여성명사의 단, 여격.

2. ἐπὶ τῇ πίστει : (믿음을 기초하여, 믿음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의 속어.

3. ὀνόματος : ὄνομα의 단, 소유격. (1:15)

4. θεωρεῖτε : θεωρέω(단축동사) (보다, 주시하다, 관찰하다, 감지하다, 알다, 깨닫다, 발견하다, 경험하다, 맛보다)라는 동사의 현, 능동, 직설, 복, 2인칭.

5. ἐστερέωσεν : στερεόω(단축동사)의 제1과, 능동, 직설, 단, 3인칭. (3:7)

6. ὀλοκληρίαν : ὀλοκληρία(온전, 완전, 건전, 건전함)의 제1변화 명사에 속한 여성명사의 단, 대격.

7. ἀπέναντι(ἀπό+έναντι 의 합성어) (부) (전치사처럼 소유격을 지배함) : (반대편의, 맞은편의, 앞에, 반대로)

17절 : καὶ νῦν, ἀδελφοί, οἶδα ὅτι κατὰ ἄγνοιαν ἐπράξατε, ὥσπερ καὶ οἱ ἄρχοντες ὑμῶν.

사역 : 형제들이여 지금도 여러분은 알지 못함에 따라 행하고 있으며, 여러분의 관원들도 그렇게 행하고 있는 것을 나는 알고 있소이다.

주) 1. ἀδελφοί : ἀδελφός의 복, 주(호)격. (본절은 호격) (1:14)

2. ἄγνοιαν : ἄγνοια(ἀ+γνώσις의 합성어) (무지, 죄에 대한 무지)의 제1변화 명사에 속한 여성명사의 단, 대격.

3. κατὰ ἄγνοιαν :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함에 따라)의 속어.

4. ἐπράξατε : πράσσω(하다, 행하다, 완수하다, 모으다, 징수하다, 있다, 지내다, 살아가다)라는 동사의 제1과, 능동, 직설, 복, 2인칭.

5. ἄρχοντες : ἄρχων(통치자, 지배자, 왕, 주, 관헌, 관리, 산헤드린의 회원)의 제3변화 명사에 속한 남성명사의 복, 주격.

18절 : ὁ δὲ θεὸς ἃ προκατήγγειλεν διὰ στόματος πάντων τῶν προφητῶν αὐτοῦ παθεῖν τὸν χριστόν, (αὐτοῦ) ἐπλήρωσεν οὕτως.

사역 :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자기 고난 당하실 일을 미리 알게하엿소이다. 이같이 이루어졌소이다.

주) 1. προκατήγγειλεν : προκαταγγέλλω(πρό+καταγγέλλω = κατὰ+ἀγγέλλω의 이중 합성동사) (미리 알다, 미리 예고하다, 먼저 공포하다)라는 동사의 제1과, 능동, 직설, 단, 3인칭.

2. προφητῶν : προφήτης의 복, 소유격. (2:16)

3. παθεῖν : (1:3)

19절 : μετανοήσατε οὖν καὶ ἐπιστρέψατε, εἰς τὸ ἐξαλειφθῆναι

ὕμῶν τὰς ἀμαρτίας, ὅπως ἂν ἔλθωσιν καιροὶ ἀναψύξεως ἀπὸ προσώπου τοῦ Κυρίου,

사역 :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들이 사함 받기 위해서 회개하고 돌아서시오. 그러면 편안한 날이 주님에게서 올 것이요.

주) 1. μετανοήσατε : (2:38)

2. ἐπιστρέψατε : ἐπιστρέφω(ἐπί+στρέφω의 합성동사)(돌아키다, 돌아서게 하다, 돌아오게 하다, (자) 돌아서다, 돌아오다, (중) 돌아서다, 돌아오다, 회개하다, 개심하다)라는 동사의 제1과, 능동, 명령, 복, 2인칭.

3. ἐξαλειφθῆναι : ἐξαλείφω(ἐκ+αλείφω의 합성동사) (기름 붓다, 닦아 없애다, 씻어 버리다, 지워버리다, 도말하다, 제거하다, 없애 버리다)라는 동사의 제1과, 능동, 부정사.

4. ὅπως(부) :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어떤 수단으로, ~하기 위하여(접속사로 가정법 동사를 취해 목적을 나타낼 때)) : ~하기 위하여)

5. ἔλθωσιν : ἔρχομαι의 제2과, 능동, 가정, 복, 3인칭. (1:11)

6. καιροί : καιρός의 복, 주격. (1:7)

7. ἀναψύξεως : ἀνάψυξις(ἀνά+ψύχω의 합성어) (시원함, 휴양, 휴식, 편히 쉬는 일)의 제3변화 명사에 속한 여성명사의 단, 소유격.

20절 : καὶ ἀποστείλῃ τὸν προκεκηρυγμένον (προκεχειρισμένον) ὑμῖν Ἰησοῦν χριστόν· (Ἰησοῦν.)

사역 :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이미 예언하셨던 이예수스 크리스토수를 보내셨습니다.

주) 1. ἀποστείλῃ : ἀποστέλλω(ἀπό+στέλλω의 합성동사 및 유음동사) (보내다, 내보내다, 전달하다)라는 동사의 제1과, 능동, 가정법, 단, 3

인칭.

2. προκεκηρυγμένον : προκηρύσσω(πρό+κηρύσσω합성동사) (공개적으로 선포하다, 대중 앞에서 공포하다, 미리 선포하다, 앞서 선포하다)라는 동사의 완료, 중(수), 분, 남, 단, 대격.

21절 : ὃν δεῖ οὐρανὸν μὲν δέξασθαι ἄχρι χρόνων ἀποκαταστάσας ἅπαντων, ὧν ἐλάλησεν ὁ θεὸς διὰ στόματος πάντων (τῶν) ἁγίων (ἀπ' αἰῶνος) αὐτοῦ προφητῶν ἀπ' αἰῶνος.

사역 :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그의 거룩한 모든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셨던 바 만물의 회복할 때까지 하늘이 그분을 받아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주) 1. δεῖ : δεῖ의 다음 반드시 대격 (οὐρανὸν)과 부정사(δέξασθαι)가 뒤따라 옴. (1:16)

2. δέξασθαι : δέχομαι(받아드리다, 영접하다, 대접하다, 환영하다, 환대하다, 손에 넣다, 쥐다, 용납하다, 승인하다, 인정하다, 견디다, 참다, 얻다, 배우다)라는 동사의 제1과, 중간, 부정사.

3. χρόνων : χρόνος의 단, 대격. (1:6)

4. ἀποκαταστάσεως : ἀποκατάστασις(ἀπό+κατάστασις=κατά+στάσις의 이중 합성어) (회복, 복구)의 제3변화 명사에 속한 여성명사의 단, 소유격.

5. αἰῶνος : αἰών(시간, 시대, 오랜 기간, 태고적, 영원, 세상)의 제3변화 명사에 속한 남성명사의 단, 소유격.

22절 : Μωσῆς (Μωϋσῆς) μὲν γὰρ πρὸς τοὺς πατέρας εἶπεν, Ὅτι προφήτην ὑμῖν ἀναστήσει Κύριος ὁ θεὸς ὑμῶν ἐκ τῶν ἀδελφῶν ὑμ

ῶν, ὡς ἐμέ· αὐτοῦ ἀκούσεσθε κατὰ πάντα ὅσα ἂν λαλήσῃ πρὸς ὑμᾶς.

사역 : 자 한편 모세가 선조에게 말씀 올리기를, 여러분의 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여러분 형제들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를 (선지자 한 분을) 세울 것이며,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말할 그분의 모든 말씀을 들어야 할 것이오.

주) 1. ἀναστήσει : ἀνίστημι(ἀνά+ῖσθμι의 합성동사)의 미, 능동, 직설, 단, 3인칭. (1:15)

2. ἐκ τῶν ἀδελφῶν : (형제들 중에서, 형제들 가운데서)의 속어.

3. ἐμέ : ἐγώ(인칭, 대)의 단, 대격(강조형). (1:4)

4. ὅσα : ὅσος의 중, 복, 주(대)격(본질은 대격). (2:39)

5. λαλήσῃ : λαλέω(단축동사)의 제1과, 능동, 가정, 단, 3인칭. (2:4)

6. ἀκούσεσθε : ἀκούω의 미, 중간, 직설, 복수, 2인칭. (1:4)

23절 : ἔσται δέ πᾶσα ψυχὴ ἧτις ᾧν(ἐὰν) μὴ ἀκούσῃ τοῦ προφήτου ἐκείνου ἐξολοθρευθήσεται ἐκ τοῦ λαοῦ.

사역 : 자,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모든 사람은 (사람마다) 백성 가운데서 멸망 당할 것이오.

주) 1. ἧτις : ὅστις(ὅς+τις의 합성어)의 여, 단, 주격. (1:5)

2. ἀκούσῃ : ἀκούω의 제1과, 능동, 가정, 단, 3인칭. (1:4)

3. ἐξολοθρευθήσεται : ἐξολοθρεύω(ἐκ+όλοθρεύω의 합성동사) (멸망시키다, 근절시키다, 완전히 파멸시키다)라는 동사의 미, 수동, 직설, 단, 3인칭.

4. λαοῦ : λαός의 단, 소유격. (2:47)

24절 : καὶ πάντες δὲ οἱ προφῆται ἀπὸ Σαμουὴλ καὶ τῶν καθεξῆς, ὅσοι ἐλάλησαν καὶ προκατήγ (κατήγγειλαν) τὰς ἡμέρας ταῦτας.

사역 : 또한 사무엘 때부터 순서대로 (나타난) 모든 선지자들이 말한 것은 이 때를 가르켜서 알려던 것이요.

주) 1. καθεξῆς (부) (κατά+ἱξης의 합성어) : (순서대로, 순번대로, 차례대로, 되풀이 되어, 후에)

2. ὅσοι : ὅσος의 남, 복, 주격. (2:39)

3. ἐλάλησαν : λαλέω(단축동사)의 제1과, 능동, 직설, 복, 3인칭. (2:4)

4. προκατήγ : προκαταγγέλλω라는 동사의 (약자) 제1과, 능동, 직설, 복, 3인칭. (3:18)

25절 : ὑμεῖς ἐστε (οἱ) υἱοὶ τῶν προφητῶν καὶ τῆς διαθήκης ἧς διέθετο ὁ θεὸς πρὸς τοὺς πατέρας ἡμῶν, (ὕμῶν,) λέγων πρὸς Ἀβραάμ, καὶ (ἐν) τῷ σπέρματί σου ἐνευλογηθήσονται πᾶσαι αἱ πατριαὶ τῆς γῆς.

사역 : 여러분은 선지자들의 자손이며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계약을 맺은 언약의 자손들이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씨로 말미암아 지상의 모든 족속들이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였고.

주) 1. ἐστε : εἰμί의 현, 직설, 복, 2인칭. (1:1)

2. διαθήκης : διαθηκη(διά+θήκη의 합성어) (유언, 법령, 칙령, 언약, 서약, 선언, 규약, 조약, 계약)의 제1변화 명사에 속한 여성명사의 단, 소유격.

3. διέθετο : διατίθημι(διά+τίθημι의 합성동사) (규정하다, 정하다, 할당하다, 위탁하다, 수여하다, 계약하다, 유연하다)라는 ~미동사의 제2과 중간, 직설, 단, 3인칭.

4. σπέρματι : σπέρμα(씨, 종자, 자손, 후손)의 제3변화 명사에 속한 중성명사의 단, 여격.

5. ἐνευλογηθήσονται : ἐνευλογέω(ἐν+εὐλογέω = εὐ+λέγω의 이중 합성동사) (축복하다)라는 동사의 미, 수동, 직설, 복, 3인칭.

6. πατριάι : πατριά(가족, 가문, 일족, 친족, 종족, 종속, 백성, 국가)의 제1변화 명사에 속한 여성명사의 복, 주격.

26절 : ὑμῖν πρῶτον (ἀναστήσας) ὁ θεός ἀναστήσας τὸν παῖδα αὐτοῦ Ἰησοῦν, ἀπέστειλεν αὐτὸν εὐλογοῦντα ὑμᾶς ἐν τῷ ἀποστρέφειν ἕκαστον ἀπὸ τῶν πονηριῶν ὑμῶν.

사역 :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인 이에수스님을 우리에게 먼저 주셨고, 여러분 각자 앞에서 돌이키게 하사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 위해 그분을 보내 주셨소.

주) 1. ἀναστήσας : ἀνίστημι(ἀνά+ῖστημι의 합성동사)의 제1과, 능동, 분, 남, 단, 주격. (1:15)

2. ἀπέστειλεν : ἀποστέλλω(ἀπό+στέλλω의 합성동사 및 유음동사)의 제1과, 능동, 직설, 단, 3인칭. (3:20)

3. εὐλογοῦντα : εὐλογέω(εὐ+λογίζομαι의 합성동사) (찬양하다, 칭찬하다, 축복하다, 복을 내리다, 은총을 내리다)라는 동사의 현, 능동, 분, 남, 단, 대격.

4. ἀποστρέφειν : ἀποστρέφω(ἀπό+στρέφω의 합성동사) (돌이키다, 잘못 인도하다, 그릇 인도하다, 이간시키다, 제거하다, 옮기다 (자) 돌아서

다. (중) 돌아서다, 떠나다, 거절하다, 돌보지 않다, 시중들지 않다)라는 동사의 현, 능동, 부정사.

5. *πονηριῶν* : *πονηρία*(악, 악행, 악독, 추악)의 제1변화 명사에 속한 여성명사의 복, 소유격.

【11월호 오탈자 수정합니다.】

쪽	틀린 곳	수정
표지	(행 3:1-20)	(행 3:1-13)
7쪽2줄	(사도행전 3:1-20)	(사도행전 3:1-13)
9쪽18줄	“너는 우리를 자세히 쳐다보라”	당신은 우리를 자세히 쳐다보시오
10쪽12줄	이것을 너에게 준다	이것을 당신에게 주오
12쪽 7줄	ἄλλοι	ἄλλοι
12쪽16줄	τε οὗτος	τε οὗτος
13쪽7줄	놀람	놀램
13쪽10줄	항흔	항홀
13쪽16줄	συνέδραμε	συνέδραμεν
14쪽2줄	συνέδραμε	συνέδραμεν
14쪽16줄	이 사람을	저 사람을
14쪽24줄	εὐρεία	εὐσεβεία

<기독교 신앙과 신앙인에 관하여>

빌립보서의 ‘하늘의 시민권자’와 노평구 선생의 글
‘무교회’ 소감

(10월 20일 오류동 모임 강의 원고{부분 수정한 것})

한 병 덕

3¹⁷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 보라. ¹⁸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¹⁹그들의 마음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²⁰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²¹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4¹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⁸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쁨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⁹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먼저, 빌립보서의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이다.

1. 기쁨의 편지: 여기 4장 1절에도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했는데, 빌립보서의 특징을 흔히 ‘기쁨의 편지’라고 부른다.

노평구 선생도 이 주석서 이름을 ‘기쁨의 빌립보서’라고 붙였다. 4장에 불과한 짧은 편지에 ‘기쁨’, ‘기뻐하라’는 낱말이 20회나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바울의 이 기쁨의 강조가 왜 우리를 주목하게 하고 감격하게 하느냐 하면 이 편지는 ‘**옥중서신**’이라 해서 지금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있는 몸이기 때문이다. 거기서 쓴 편지다.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기뻐할 처지에 있지 못한 상황에서 기쁨에 넘쳐있고 성도들에게도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2:18),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4:4)

이런 식이다.

외적 상황이 어떠하든 내면으로 기쁨이 넘쳐있는 상태의 삶을 생각하게 하는데,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도 비슷하게, “**항상 기뻐하라, 쉬임없이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살전 5:16-17)고 했다. ‘**항상**’, ‘**쉬임 없이**’, ‘**범사에**’ 등에 해당되는 생활은 결코 노력해서 될 수 없고 존재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어야 가능할 것이다. 여기 ‘**하늘의 시민권자**’라는 표현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태어난 그대로의 인간에게가 아니라, 변화된 존재를 향해 주시는 말씀인 것이다.

기뻐할 처지에 전혀 있지 않은데도 기쁨이 넘치고 타인들에게도 말끝마다 ‘**기뻐하라**’고 한 바울의 이 모습에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게 되는가? 우리의 생각의 방향은 당연히 곧바로 바울의 이 기쁨의 원천으로 향하게 된다. 그리고 그 해답을 우리는 ‘**주 안에서**’라는 표현에서 찾을 수 있다고 본다. ‘**주 안에서**’라는 말씀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태어난 대로의 그가 아니라 바뀌어진 새 인격이며 그리스도의 사람, 바울의 표현으로는 ‘**그리스도의 종**’을 의미한다고 본다. 고린도후서

5:17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의 그 ‘새것’이다. 그러므로 성서에서 설사 ‘주 안에서’라는 표현이 없다고 해도 믿는 자의 기쁨, 감사, 평안 등을 말할 때는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것이 그 원천이기 때문이다.

노평구 선생은 여기 내용과 관련, 이런 말씀을 한다.

“누구나 몇 분 동안만이라도 빌립보서를 한 번 읽어 보면 여기 예수 그리스도와 기쁨이라는 말이 연방 나오고 있는 것을 곧 알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거의 40회, ‘기쁨’은 거의 20회 나오고 있다. 따라서 유명한 주해자 벙겔은 본서를 ‘기쁨의 글’이라고 했다. 그러나 바울의 기쁨은 날씨만 변해도 흐리고 마는 거품 같은 인간의 기쁨은 아니었다. 돈이나 명예나 성공, 건강 등에 좌우되는 소위 세상 기쁨도 아니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생명적인 연결에서 오는 기쁨이었다. 전혀 인간적인 것이 아니고, 그가 갈라디아서에서 말한, 이제 이 죽을 죄의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내 속에서 사는 삶, 그의 의와 그의 부활 생명에서 오는 기쁨이었던 것이다”(전집 5. p. 246)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생명적인 연결상태에서 나오는 기쁨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주 안에서’라는 표현이 바로 그 연결, 즉 그 소속, 연합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라는 비유로, 혹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요 15:4-5)라는 말씀으로, 상호 불가분리의 표현으로 나타내기도 한다.

다음, 20절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한 이 ‘**하늘의 시민권자**’에 대해 생각할 점입니다. ‘이제 당신들의 시민권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있다’. 특히 그들의 신분은 이제 당시의 사람들이 그토록 금지로 여겼던 로마에 속해 있는 자들이 아니라는 말씀이라 할 수 있다. 로마가 세계 최 강대국이었던 바울 시대에 로마 시민권은 큰 특권이며 금지였던 것을 성서는 기록하고 있다. 그것을 우리는 사도행전 16장과 22장에서 바울의 신분을 몰라보고 함부로 대했던 로마 관리들이 그가 로마시민이라는 말에 두려워하는 내용에서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바울은 아마도 빌립보 신자들을 세상이 금지로 여기고 있을 로마 시민권과는 비교할 수 없이 영광된 신분의 존재들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 천국시민이 앞으로 성취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영적으로 이미 획득된 지위로 표현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실현된 종말론**’ 또는 ‘**현재적 종말론**’이라고 한다. ‘**종말**’이란 흔히 미래에 성취될 인류 구원의 완성의 때를 말하는데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 자,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원자로 받아드리고 그 안에 있는 자는 종말에나 실현될 일이 현재에도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시민으로 살고 있다는 것이 ‘**실현된 종말론**’의 의미인 것이다. 성경적으로도 요한복음 11:23절 이하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직전 예수님과 마르다의 대화에서 이런 내용을 볼 수 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즉, 마르다는 부활 같은 일은 종말 때에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

고 있는데 예수님은 현재적 부활과 현재적 영생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여기서, ‘눈앞에 보이는 것은 인간일 뿐인데, 그가 죽은 자를 살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주인이신 존재임을 내가 정말 믿는다면 너는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예수님의 생명의 나라로 옮겨진다’고 확언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살아난 나사로도 그 이후 영생을 산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예수가 정말 생명의 주인임을 실증하는 사건이었고, 그를 정말 그렇게 믿으면 그는 그분의 영원한 생명에 이미 참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해놓고 특히 “네가 이것을 믿느냐?”고 물어보셨다. 왜 그럴까? 그 일은 땅만 쳐다보는 인간으로서는 정말 믿기 힘든, 실로 경천동지(驚天動地)할 일임을 잘 아시기 때문일 것이다.

믿는 자는 현세에서도 이미 하늘의 시민권자, 천국백성이 되어 있다는 사실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는 또 마태 12:28에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고도 말씀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로서 천적인 권능을 행하고 계신 것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 그는 현재에도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다는 의미인 것이다.

또 골로새서에서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 내사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말씀하고 있다(골 1:13)

이때 ‘건져냈다’, ‘옮기셨다’라는 동사의 시제 즉, 그 말이 나타내는 때는 ‘앞으로 건져내실 것이다’라는 미래 사실이 아니다. 헬라어에서는 이들이 모두 과거로 되어있고 영어에서는 그 의미를 좀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 모두 현재완료로 번역하고 있다. 현재완료란 우리가 아는 대로, 시작은

과거에 되었지만 그 결과가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다는 의미를 나타낼 때 쓰는 표현법이다. 그러니까 믿는 자는 이전에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냄을 받았고 그로 인해 현재의 신분은 ‘건짐을 받은 자’,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 즉 ‘하나님의 지배와 섭리 가운데서 사는 자’가 되어있다는 의미를 읽을 수 있다.

바울이 빌립보 신자들에게 깨닫게 하려고 한 그들의 현재의 신분은, 말하자면, 로마든 어디든, 땅의 시민에서 ‘하늘의 시민’으로 옮겨졌다. 라는 것이며, 그들이 그 사실을 자각하면서 사는 삶이야말로 그 삶의 자세에서도 중대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항상 기뻐하는 삶, 세상에서의 어떠한 고난이 밀려와도 강 같은 평화가 있는 삶, 로마 뿐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의 기독교 역사에서 볼 수 있는, 순교까지도 감당하게 하는 놀라운 신앙의 삶은 바로 여기에 근거할 것이다.

다음, 위에 읽은 빌립보서 4장 8절과 관련, 생각되는 점이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인데, 이 권면은 빌립보 교인들이 하늘의 시민권자임을 전제하면서 그들에게 요구되는 덕목이라 할 수 있다. 자신들이 변화된 하늘의 시민권자임을 늘 자각함으로써 그 신분에 합당하게, 모든 면에서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깨끗하여 하나님 앞에는 물론 세상으로부터도 사랑과 칭찬받을 만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뿜는, 삶을 살이라는 권면이라 할 수 있다.

이어서 빌립보서에 강조된 교훈과도 연결되어 있는 노평구 선생님의 글이다. 이 글을 통해서 진정한 신앙인과 그 신앙은 어떤 의미인지를 조금 더 생각해 보기로 한다.

나의 무교회(無教會)

나의 무교회주의는 교회 공격이나 또는 성서 연구에 의한 교회 확청¹⁾이 목적이 아니다. 물론 교회의 불신, 그 세속주의, 그 형식주의에 대한 싸움은 앞으로 더욱 맹렬히 할 것이다. 그러나 교회 자체는 가톨릭이 루터에 의해 끝내 확청되지 못한 것과 같이 무교회의 공격으로 확청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것은 끝까지 썩을대로 썩어갈 것이다.

그러므로 무교회는 교회 밖에서 새롭게 싹트고 새롭게 커 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꿈에라도 오해하지 말라. 무교회는 새로운 조직이나 새로운 교회, 새로운 교파가 아니다. 그것은 오직 성서 진리에 의해 개인과 하나님 사이에 신앙만으로 성립되는 관계일뿐,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즉 신앙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로만 생각한다. 여기에 단체적인 것은 생길 수 없지 않은가. 무교회는 영원히 교회 없는²⁾, 교파 없는 신앙 상태이다. 늘 하나님과의 관계만 똑바로 하고 사는 신앙생활이다. 이리하여 똑바로 회개하고 똑바로 죄 사함을 받아, 우리의 양심과 도덕이 살아나고, 자유와 독립이 싹트고, 정의와 사랑이 물 흐르듯 흘러 삼천만이 천국의 백성 되고, 삼천리 강산이 진리와 영(靈)으로 사프란, 수선화같이 아름답게 피어나기를! 이것이 무교회 신자의 기원인저! 그들의 생활이고 유일한 목표인저, 야심인저! (노평구전집 제1권 102쪽)

읽어보신 분도 계실 것인데 이해는 어렵지 않다. ‘무교회’라고 했지만

1) 더럽고 지저분한 것이나 폐단 따위를 없애고 깨끗하게 함.

2) 여기 “교회 없는’ 신앙상태”라는 말은 ‘교회주의 없는’의 의미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무교회라 해서 노선생님이 ‘두 세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성서적 의미의 에클레사로서의 교회를 결코 부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노 선생님이 평생 강의한 무교회 집회 자체가 실제로 그런 모임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교회에서 말하는 ‘교회주의’란 교회당과 의식을 중시하고 성직자와 평신도를 구별, 조직하여 제도화시킨 제도교회를 의미한다.

이것은 교회, 무교회 가릴 것 없이 진정한 그리스도교 신앙 자체이며 그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명쾌하게 하고 있는 것이며 나로서는 실로 ‘아멘’이다. 시간상 여기서 핵심적으로 중요한 문제로 생각되는 한 가지만 언급하고자 한다. 그것은, 즉 무교회 신앙은, “오직 성서 진리에 의해 개인과 하나님 사이에 신앙만으로 성립되는 관계일뿐,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즉 신앙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로만 생각한다”는 말씀이다.

노 선생님은 신앙을 ‘성서 진리에 의한 믿음에 의해서만 성립되는 개인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라고 규정했는데 ‘성서 진리’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이고 동시에 예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라고 하신대로 그리스도 자신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노 선생님의 신앙도 오로지 ‘나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만’, 혹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이며 그 외 다른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관계만’이라 할 때 가톨릭은 물론 제도권 개신교에서도 예배의 필수 요소로서 중시하고 있는 의식 같은 것은 필요 없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기독교 신앙이란 바로 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핵심 중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관계’라면 친교(親交)다. 구체적으로는 그것은 곧 **함께하는 삶**이 될 것이다. 즉 노 선생님은 기독교 신앙을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삶이며 그것이 전부라고 믿고 일생을 두고 그것을 추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위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말한 ‘하늘의 시민권자’, 즉 천국시민의 의미가 바로 그것이라 할 수 있다.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옹호하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라고 강조하는 바울의 권면은 곧 그들의 신분에 걸맞는 삶이며, 이는 그 특성이 자력갱생(自力更生)이 아닌, ‘관계’에서 나오는 삶, 곧 ‘함께 하는’ 삶인 것이다. 세계의 다른 어떤 중요 종교에서도 믿음의 중심 내용을 교주와 그

믿는 자 사이의 ‘관계’라고 주장하는 것은 없다. 오직 교주의 교훈을 따르라고 주장할 수 있을 뿐인 것이다. ‘친교 관계’란 부활하여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전제되어야만 가능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다음, “우리의 양심과 도덕이 살아나고, 자유와 독립이 싹트고, 정의와 사랑이 물 흐르듯 흘러 삼천만이 천국의 백성 되고, 삼천리 강산이 진리와 영(靈)으로 사프란, 수선화같이 아름답게 피어나는” 상태에 대한 생각이다.

김교신 선생이 성서조선 창간사에서 ‘조선을 성서 위에’라 하고 ‘1백년, 혹은 5백년 후’³⁾까지 바라보면서 “오직 우리는 조선에 성서를 주어 그 골근을 세우며, 그 혈액을 만들고자 한다”며 그 터를 놓는데 혼신의 진력을 다 하다가 목숨을 바친 비전이 어찌 단순한 정치적 독립 조선일까? 그것은 노 선생님이 품고 있던 저 민족 이상이었을 것이다. 나는 김교신 선생이나 노평구 선생은 기독교의 참된 복음을 알게 되면서 이심전심 적어도 저 모습을 독립된 조선 민족의 이상으로 공유했으리라 믿는다. 다만 노 선생님은 개인에 있어서는 저 비전은 반드시 먼 미래가 아니라 현생에 있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만 똑 바로 하고 사는 삶”이 될 때는, 곧 천국시민이 될 때는, 성취될 수 있음을 좀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신앙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의 삶’이라면 그것은 머리로 인정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닌, 성서 말씀을 토대로 우리의 일상이 그분께 다가가고 의존, 순종하는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보이지 않더라도 주께서 떠나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마 28:20)고 하신 약속을 깊이 새기고 그분 앞에서 사는 삶이라는 생각이다. 그렇지 않을 때, 기독교 신앙은 머리로 이해하는 데 머물러 그 믿음은 무

3) 성서조선 사건 때 일본 취조 형사가 추궁한 말의 일부로 석방 후 김교신 선생이, “그들이 보기는 바로 보았다”고 이를 인정(유달영 증언, 김교신 전집 별권 135쪽)

미건조한 지식이 되어버릴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이 그리스도와 인간의 관계, 즉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왜 그토록 강조되느냐 하는 점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에 라든가 심원한 도덕률 등의 교훈은 교훈 자체로서도 다른, 이른바 고등 종교들의 것 이상의 교훈이 있지 않느냐? “인간의 도덕률이 아무리 높고 심원하다 해도 그리스도의 산상 수훈에 이를 수는 없다”고 평가되는데 기독교도 타 종교들처럼 그 실천을 강조할 것이지 왜 기독교는 유독 것처럼 신·인 사이의 관계를 강조하느냐? 고 생각할 수 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 답변은 성서 자체가 온통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성서는 일관되게, 구, 신약 전체가 인간 문제의 핵심을 그 관계의 단절에 기인한다고 말씀하고, 그 단절된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인간 문제의 해결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독교를 한 마디로 표현한다면 ‘신·인 관계의 회복’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의미 속에 기독교에 대한 모든 사실이 다 들어있다고 생각한다.

인간의 타락도 에덴의 추방 즉, 인간의 자기 창조주와의 단절도, 창조주 없는 인간의 비참도, 창조주의 긍휼도, 단절을 복원시키기 위한 창조주의 구원 계획도, 마침내 단절의 회복 실행 조치도 모두 이 창조주와 피조물 인간 사이의 관계의 회복이라는 말 속에 다 들어있는 것이다. 성서는 이 중에서 인간 창조와 그 타락으로부터 하나님 없는 인간의 비참과 구원 계획에 관한 내용까지가 구약이고, 창조주 하나님의 관계회복 계획의 실질적 조치가 신약이라고 할 수 있다.

단언컨대 성서는 이 인간의 자기 창조주와의 관계, 곧 단절과 회복의 관점에서 읽지 않고 무슨 율법의 준수나 도덕의 실천의 관점에서 읽으면

곧 바로 그 길을 잃게 된다고 생각한다. 구약은 인간이 자기 창조주로부터 관계가 단절되면,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 파라다이스에서 추방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비참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다. 인류 중에 선택되어 인류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히브리민족, 그 족장시대로부터 이후의 삶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 때 일시적으로 평안의 모습도 볼 수도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유리, 방랑, 주변과의 싸움이 그들의 삶의 모습이었다. 히브리어 기자가 아브라함을 비롯한 이스라엘 족장들의 삶과 소망을 묘사한 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이는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히 11:13, 14)한 말씀은 그들이 애굽에 있든, 약속의 땅에 있든, 본질적으로 평안의 관점에서 전혀 변한 것이 없었다고 할 수 있다. 그 원인을 성 어거스틴의 고백은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즉, “주여, 당신은 우리를 당신 안에서 살도록 지으셨으므로 당신 안에서 안식을 얻을 때까지 우리에게 평안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절절하게 공감시키는, 창조주와 단절되고 회복되어야 할 인간실존의 모습이며 염원인 것이다. 구약 성서는 단적으로 이를 말하고, 신약은 창조주의 전적인 주도에 의해 그 단절된 관계의 회복의 길이 열렸다는 소식, 곧 복음의 선포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다.

그런데 이 신·인 관계의 문제, 하나님 앞에서의 사는 문제에 관해서 무교회가 좀 더 비판받는 측면이 있으며 나는 일정 부분 이에 동의한다. 곧 무교회 사람들은 지식인들이 많아 하나님과의 관계도 실제적이 아닌 지식과 이성의 차원에서 파악하고 직접적인 관계를 소홀히 하는 측면이 있다는 비판이 있었던 것이다. 이런 비판은 한국 무교회 초창기부터여서 한 때 우치무라 간조에게서 신앙을 배웠다는 복음교회 설립자 최태용 목사가 김교신과 성서조선 동인들의 성서조선지를 중심으로 한 무교회 활동을 ‘서생의 유희(書生의 遊戲)’라, 즉 폄훼(貶毀)의 의미를 담아 ‘지식인들

의 지식놀이'로 비판하여 논쟁이 있었던 것이다. 이런 비판을 김교신 선생이나 송두용 선생 등에 적용할 수는 없지만 예수의 복음을 성서의 증언대로 받으려 하지 않고 자신의 지식과 이성으로 가감하여 기독교를 다분히 동양철학으로 해석한 유영모 선생이나 속죄론을 부정하며 기독교를 역시 순 정신적으로 이해한 함석헌 선생, 기타 무교회주의를 논하는 여러 지식인들에게서 함석헌 선생 비슷한 예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다. 그들은 성서에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이 세상에 지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세상의 지혜를 폐한 것이 아니냐...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전 1:20-21) 하고,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으로 불릴 정도로 온통 성령 활동의 기록인데도 천적인 문제들을 지식이 장착된 이성에 의해 기적을, 속죄를, 부활 등을 파악하려 하면서 ‘지식을 무시하니 맨날 예수 천당이라는 할머니 신앙을 벗지 못한다’고 오히려 비판하면서 자신의 지식 안으로 들어오는 것만 인정하거나 왜곡하기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적어도 기독교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생명을 바쳐 열어주신 길, 곧 믿음에 의해 우리의 일상이 기도와 삶에 의해 하나님의 품 속으로 파고들지 않는 믿음은 별 의미가 없다고 나는 감히 단언한다. 다만 동시에 분명한 것은 한 인격에게 지식 이상의 영적, 초월적 세계관을 실체로서 받아들이게 하는 것 또한 성서가 증거하는 바 기도와 은총의 영역이다. 하나님께서 성전건축의 과업이 잘 되지 않아 실망하는 스룹바벨에게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슥 4:6)고 하셨다. 하물며 인간이 하나님을 아는 문제는 더욱 하나님의 영의 인도로 될 것이다. 인간 편에서는 겸손한 기도가 그 해결방법일 것이다.

한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며, 하나님과의 친교의 삶

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사례들은 우리를 감동시키는데 그 한 예이다.

앞의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상식으로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자신이 기쁨 속에 있고, 신자들에게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한 상태에 대해 그것은 노력해서 될 수 없는 문제로서 그의 신분이 변화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전적으로 소망 중에 사는 신앙의 사람의 모습이라 했는데, 나는 이와 같은 신앙 삶의 실례를 우리 무교회에서 박석현 선생님의 ‘**감사**’의 삶에서 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곤 한다. 그분의 삶에 대한 증언을 읽으면 읽을수록 울컥하고 감격해서 나는 2020년 신년 전국 집회에서 이에 대해 말씀 한 바 있었는데, 참 신앙은 사람을 그가 처한 외적 상황에 관계 없이 이토록 영혼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감사와 기쁨의 인격이 되게 한다는 점을 여기 상기시키기 위해 다시 요약 소개한다.

그러니까, 박 선생님은 일제 말기 성서조선 사건 때, 세 살 난 딸을 남기고 아내가 죽었는데 바로 그다음날 그는 성서조선지 구독자라 해서 하루아침에 경찰공무원직을 박탈당했고, 이후 극심한 가난 가운데 살면서 그 고통에 끝까지 그리스도인의 지조를 잃지 않고 감사하며 일생을 마친 것이었다. 왜정 때 아이들을 거느린 가정이 생활 유지의 유일한 수단인 직장을 잃는다는 것은 오늘날 직장을 잃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될 것이다. 박 선생님은 당시의 회고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다. “**어린 애는 계속 엄마 찾아 울고 앞이 캄캄한 상황에서 겨우 장례를 치른 후 정신을 좀 차렸을 때 떠오르는 것이 이렇게 된 것이 오히려 다행이라는 생각에 감사였다**”는 것이다. 만일 병든 아내가 죽기 전에 집안을 책임 진 자신이 직장에서 쫓겨난 것을 봤다면 아내의 그 충격이 어땠을까를 생각하니 하루 사이일망정 죽고 나서 그 일을 당한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감사하고, 감사의 마음이 드니 마음을 추스릴 힘이 생기더라는 것이다.

그밖에 1966년 11월 어느 날의 일기를 보면,

“우리 진민이 양말을 처음으로 두 켤레 사왔다. 지금까지 헨 양말만 기워서 신졌는데. 이 다음엔 주부 양말을 한 켤레 사와야겠다. 주부도 새양말 신어본 적이 없으니까. 이런 궁핍한 생활을 감당케 해주신 것도 주님의 은혜이므로 감사할 뿐이다.”

또 아드님인 박천민씨가 아버지의 신앙생활 모습을 증언하는 내용에 이런 글도 있었다.

“아니 그토록 찢어지게 가난한 생활이었는데도 물질적으로 궁핍하지 않게 하셔서 감사하다니 실로 기가 찰 일이었다.”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아버지의 모습은 그 고난의 와중에서도 늘상 무릎을 꿇고 단정히 앉아 감사의 기도를 드리던 그 자세였다. 그 가난 속에서도, 식구들이 그토록 병치레만 해대는데도, 되는 일은 없이 어려움만 닥치는데도, 가정예배 시간이면 밤낮 감사하단다. 더 큰 어려움이 없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견디고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하고, 믿고 순종하게 해주셔서 감사하단다. 보리밥에 김치와 간장 하나가 놓인 식탁 앞에서도 항상 감사하단다. 험벗고 굶주리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하단다. 감사할 게 하나도 없었는데.”

나는 선생을 몇 번 뵈었으나 당시 선생을 잘 몰랐었고 선생 소천 후 그분에 대한 증언의 말씀들을 통해 알게 되었다. 참으로 소망을 하늘에 둔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고난의 시대를 이겨낸 그의 믿음과 삶은 김교신, 송두용, 노평구, 장기려, 최태사, 국희종 등등의 선생들의 신앙과 함께 우리 후진들이 새겨야 할 참 신앙인의 한 전형(典型)이요 이어받아야 할 자산이었다. 우리는 이런 신앙 삶의 기록들을 통해서 기독교 신앙이 진정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내 신

양이라는 것을 비추어 생각하면서 도전을 받게 되는 것이다.

에베소서 읽기 7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

손 현 섭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엡 1:7)

1. 들어가며

우리는 앞에서 구원이란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의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알았다. 구원이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의해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지 우리의 반응에 의해 우리의 선택에 의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

구원은 창세 전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의 자격이나 조건이나 성실함이나 반응이 거기에 보태지지 않는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른다.

나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이래도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나?” 하는 의문을 가질 때 가장 흔들렸던 것 같다.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을 나의 공로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만일 하나님께서 나에게서 조금이라도 구원에 합당한 조건을 찾으신다면 나는 벌써 포기했어야 한다. 게다가 마음과 생각까지 살피시는 분이시니 나에게 구원은 언감생심 안 될 일이다. 그러나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서 나온 만큼 나의 반응이나 선택, 열심을 보고 결정된 일이 아니다. 그래서 나는 “그래, 나는 이렇게 실패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절대 실패하지 않으신다.” 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

2. 본문 살피기

1) 하나님의 영광

에베소서의 시작은 구원에 관한 서술이다. 그런데 그 구원의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한다.

하나님의 영광!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 수없이 들었다. 그런데 늘 다시 그 의미를 잊어버리곤 한다.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기로 하자.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다. 즉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거기에 반응하는 감사와 찬송’을 통틀어 ‘하나님의 영광’이라 할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건 무엇인가? 다시 반복하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인정한다는 뜻이다. 나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 감사와 찬송을 드린다는 뜻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인정하는 사람을 자녀로 삼아주시는 일이 바로 구원이다. 누구나 구원에 대해서는 각자의 체험이 있어 다양한 의미로 해석할 것이다. 내 문제, 내 감격, 내 눈물, 내 시원함, 이런 개인적 체험이나 생각을 떠올려 구원을 받아들인다. 그런데 구원의 보편적 의미를 설명하자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말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영원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등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다. 구원받았다 함은 이 하나님을 알게되었다는 말과 같다. 반면에 죄는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다. 성서는 그것을 죄라 한다.⁴⁾

4) 롬3:23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죄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다.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우상이나 짐승의 형상으로 바꾸어 놓고도 마음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⁵⁾

개신교의 핵심 진리를 질문과 대답으로 엮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소 요리 문답 1번은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을 확인한다.

문 : 인생의 첫 번째 목적이 무엇입니까?

답 :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고 영원토록 그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내가 세상에 태어난 목적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이 물음에서 사람들은 많이 넘어진다.

“성서를 많이 읽고 공부해야지요.”

“기도를 많이 합니다.”

“교회생활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주의 사랑을 실천해야지요.”

등등 수많은 좋은 행동들을 열거한다. 물론 이 행위들도 선한 생각에서 나왔으니 나쁘지 않다. 그러나 핵심이 빠졌다. 앞에서 말한 ‘하나님의 영광’, 즉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일이 우선이어야 한다. 어찌면 앞에서 말한 성서공부, 기도, 교회 생활, 사랑의 실천을 전혀 할 수 없는 처지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사람은 주의 자녀이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빼버리면 있는 정성을 다해도 허사라는 말이다.

5) 롬1:23 씩여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씩여질 사람과 금수와 버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렇게 이루어지는 구원이 우리에게는 분명히 복음이지만, 또 다른 누구에게는 잔혹한 일이 될 수도 있다. 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주신 바다.

내게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모두 다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만 들어갈 것이다. 그 날에는 많은 사람이 나에게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말할 것이다. 그러나 그 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악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거라" 하고 분명히 말할 것이다.(마 7:21-23)

주여주여 하면서 예언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기적까지 행하지만, 정작 주님은 그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실 거라 한다. 왜 그런 사태가 났겠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다른 결가지를 붙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제부터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결가지가 아니라, 우리가 잡아야 할 완전한 줄기에 대해서 말해 보자.

2)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바울 사도는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라고 우리가 붙들어야 할, 그 완전한 줄기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다 알고 있듯이 우리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들판의 목자들에게 나타난 천사들이 "하나님께는 영광이다"라고 찬송하였다.⁶⁾ 십자가 죽음으로 향하는

6) 눅2:13-14 홀연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 지극히 높은 곳에서
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들의 탄생이 하나님께 슬픔이나 희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라 하였다. 그뿐만이 아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도 하나님의 영광이라 한다.⁷⁾

그렇다!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가 죽으시고 부활한 이 과정이 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기 때문이다. 결국 인간의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이다.⁸⁾

바울 사도가 앞의 4절과 5절에서 ‘사랑하시는 자’가 누구인지 그 이름을 분명히 밝혔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였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기의 자녀가 되게 하였다.

그리고 6절 끝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대신에 ‘그 사랑하시는 자’라고 칭한다. 이 ‘사랑하시는 자’가 오늘의 7절까지 이어지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가신다는 뜻이다.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獨生子), 곧 외아들이다. 하나님께서 예수의 공생애 중에 예수를 가리켜 ‘사랑하는 아들’이라 직접 말씀하신 일이 있다.

처음은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다.

7) 롬6:4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8) 고후4:5-6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데서 빛이 비취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취셨느니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마 3:17).

두 번째는 제자들(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갔을 때의 일이다.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고 구름 속에서 음성이 들려왔다.

“이 사람은 내가 사랑하고 기뻐하는 내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마 17:5)

히브리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요, 그 본체의 형상(히 1:1-3)이라고 한다. 하나님의 영광 그 본체(本體), 독생하신 아들이자 하나님이다.

사도 요한도 증언하였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다. 그러나 아버지 품속의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요 1:18)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을 보내셨다”(갈4:4).

그 사랑하시는 자, 독생하신 하나님을 세상으로 보내신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다. 왜인가? 세상을 사랑하였기 때문이다(요 3:16).

3)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사랑하시는 자와 하나님의 영광을 거저 주셨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말이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인 우리를 불렀다. 무엇 때문에 불렀는지 예수님의 기도(요 17:23) 속에서 찾아보자.

“나와 저희와 아버지가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심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시

려 한다. 아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된 사람들을 아들만큼 사랑하신다. 우리가 하나님께나 세상에 대가를 지불해서가 아니다. 그냥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바다**.

거저 주신다. 이는 공짜로 아무런 요구도 없이 베푸는 은혜다. 그것이 참 수수께끼이다. 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인정하고, 믿는 사람이 되었을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덕분이다.

앞에서 말한 대로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의무를 했기 때문인가? 아니다. 성경을 잘 읽지도 않고, 성서 연구와는 멀고, 기도를 전혀 안 하는 날도 많고, 교회 생활도 하지 않으며, 선한 실천도 없는 내가 이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만한 자격이 있는지 생각하면 부끄러움이 앞선다.

3. 맺으며

하나님의 영광은 ‘은혜의 영광’이다. 은혜는 헬라어 원어로 ‘카리토오(χαριτόω)’인데 하나님의 크신 은총(highly favoured)이라는 뜻이다. 이 말은 가브리엘 천사가 처녀 마리아에게 수태고지 하면서 쓴 단어이다(막 1:28).

“크신 은총(κεχαριτωμενη(χαριτόω))을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⁹⁾

하나님의 아들을 품게 되는 마리아. 에베소서는 우리를 향해 똑같이 ‘크신 은총을 거저 받은 자’라 부른다. 하나님의 아들을 품게 된 마리아처럼 우리도 그 아들은 품었다고 알려주기 위해서다.

9) και εισελθων προς αυτην ειπεν χαιρε κεχαριτωμενη(χαριτόω) ο κυριος μετα σου

조명한 교수도 이 부분에서 말씀하였다.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영광에 근접할 수 없다. 은혜에 들어감을 믿음으로써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여 찬미할 수 있다. 우리를 택하시어 거룩하다 부르시고 당신의 자식으로 우리를 양자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이 하나님의 의지의 선한 기쁨심이라면, 그 기뻐하심을 입은 독자로서는 비로서 개안하여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바라보고 찬미를 올리지 않을 수 없다.¹⁰⁾

나 같은 사람에게도 ‘거저 주시는 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고 있음을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리고 우리 가족이, 우리 이웃이 이 크신 은총 안에 함께 속하여 있기를 항상 기도한다.

10) 조명한 저, ‘에베소서 이해’, pp.44-45.

시편 2편(2)

최 정 일

(3)7-9절의 주해

1)안소근 교수의 해석

①7절의 해석

O‘너는 내 아들’: 이집트 문화에서 비교적 유사한 것이 있는데, 거기에서 ‘바로’[=파라오]는 ‘라’[=Ra=신의 아들]로 간주되었다. 이스라엘에서는 <다신론(多神論)>적 요소들을 거부하면서도 ‘왕’을 <주님께 입양된 아들>로 여겼다.

O“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공적으로 왕이 즉위한 순간>은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그 날은 <왕이 적법한 통치자로 태어나는 때>였다.

O7절<나 이제 주님께서 내리신 칙령을 선포한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의 의미는 <나는 하나님의 칙령을 선포한다. 그 칙령은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내 자신의 권위에 의거하여 행하지 않을 것이다. 만일 그것을 나 자신의 권위에 의거하여 행한다면, 그것은 ‘내가 나를 자랑한다’는 겉모습을 가지게 되기 때문이다>라는 뜻이다. 그러나, [요 7:16]에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르셨다. “나의 가르침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다.”」라고 있고, [요 14:10]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네(=빌립)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나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다. 내 안에 머무르시는 아버지께서 당신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라고 있다.

2)루터의 해석

①7절의 해석

O7절의 말씀=주님의 결정을 나는 선포하겠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

셨다.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은 오히려,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선포하겠다. “나는 그분의 아들이다. 그분이 오늘 나를 낳으셨다”>로 서술했다면, 더 알기 쉬웠을 것이다. 그러나 <성서본문>처럼 <성령>께서 인도하신 것은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권위를 세우고, 아드님이신 하나님의 모든 것은,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기인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다. [요 12:49]에는 「나는 내 마음대로 말한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무엇을 말해야 하고, 또 무엇을 이야기해야 하는가를, 친히 나에게 명령해 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

O<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너는 내 아들이다>: 여기서 주님은 모든 <구약성서>를 완전히 종료시키신다. 즉 <그들은 충분히 모세를 가르쳤다. 이제 나는 모세가 가르치고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것을 가르치려고 한다. 즉 [나는 인간이며 지상(地上)에서의 주이고, 동시에 주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왜냐 하면 복음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드님을 믿어야 한다>라고 가르치기 때문이다.

O‘6절’에서는 <하나님께 의하여 시온 산에 세워지는 왕>이 나온다. 그러므로, <그 왕은 인간이고 피조물>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세운다>. 즉 <창조주>이시다. ‘7절’에서는 <이 왕>은 또한 <영원으로부터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드님>이시기도 하다. 이것을 우리는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왕>스스로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치셔야 하고, 그리고 그것은 믿음을 요한다! 하나님은 <시간 바깥>에 계시고, <영적 본성>을 가지고 계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시간적(=일시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을 낳으실 수는 없고, 오직 <자신과 동일한 본성>, 즉 <영원한 것>과 <영적인 것>만을 낳으실 수 있다. <이 인간>은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시간 안에서 태어나기 전에> 이미 계셨다. 즉 그분이 <성령을 통하여 마리아의 태 안에 임신되기 전에 영원으로부터> 계셨었다.

O여기서 ‘오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 개념이다. <성서본문>은 <이 분:Person>안에서 <신성(神性)과 인성(人性)>을 하나로 결합시키고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입니다=Dieser Mensch ist Gott=This man is God>라고 말하는 것은 정당하다. 이 기사[=‘너는 내 아들이다’]를 확고히 믿지 않는 자는, ‘그리스도’를 1)이슬람교도처럼, ‘예언자’로 생각하거나, 아니면 2)루터 당시의 교황주의자처럼, <그리스도의 행위(=역사하심)와 말씀>을 찬양하지 않고, 다른 데서 <죄의 용서>와 <영생>을 찾는 자들이다. 물론 그들이 <예수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고, 본디오 빌라도=폰티우스 필라투스>아래 수난을 당하셨다>는 것은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으로부터 구원의 희망>을 가지지 않는다.

O<그리스도의 영원한 출생>에 관한 <이 믿음의 핵심내용>, 즉<‘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를 지나쳐 버린다면, 전(全) 복음은 그저 <세상적인 단순한 역사적 사실>로 될 뿐이다. 그러므로 <이 믿음의 핵심내용>에 모든 것이 걸려 있다! <이 믿음의 핵심내용을 가지는 사람에 있어서만> <그리스도의 말씀들과 행위들>은 <그 사람을 살리고, 살아 있는 것>이 된다. <극히 간결한 몇 마디>이지만, <끝없는 무게>를 가진다! 이것을 인간의 이성(理性)은 알 수 없다. 이성은 <시간을 초월하는 것>과 <시간을 넘어서는 것>을 알 수 없다. 그것에 대해서는 완전히 맹인이다. 이것을 알려면, 오직 <믿음>이 필요하다. 바울 사도가 [고전 14:34-여자들은 에클레시아 안에서 잠자코 있어야 합니다. 여자에게는 말하는 것이 허락되어 있지 않습니다]라고 여자들에게 명령한 것에 빗대어 말한다면, <인간의 이성은 여기서 말해서는 안된다.! 침묵해야 한다! >

O<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여기에 <삼위일체>가 나와 있다! 1)<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그 분의 메시아>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말씀하신다. 2)<아드님이신 하나님=메시아>께서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당신의 아버지>에 대하여

말씀하신다. 3)<성령>께서 <이런 말씀과 모든 시편>을 <다윗>을 통하여 말씀하신다. [삼하 23:2-다윗의 마지막 말]에는 「주님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니 그분의 말씀이 내 혀에 담겨 있다」라고 있다. 그러나, 오직 <메시아=그리스도=아드님이신 하나님>만이 인간이 되셨고,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셨다! [히 1:5]. 이것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는다!

②8-9절의 해석

O<주님께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게 간청하여라! 못 나라를 유산으로 주겠다.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너의 소유가 되게 하겠다’>:여기서는 <이방 민족>에 대한 간청이 나온다. <하나님의 축복과 그리스도의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아브라함 안에서 약속되어 있었으나, 이방 민족에게는, 약속없이 <순전한 공휼>에 의하여 값없이 선물된 것이다. [롬 15:8-9]에는 「내가 말하는 것은 이러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드러내시려고 할례를 받은 사람(=유대인)의 종이 되셨으니, 그것은 하나님께서 조상에게 주신 약속들을 확증하시고, 이방 민족들도 공휼히 여기심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주님께 찬양을 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찬미합니다”한 것[삼하 22:50; 시 18:49]과 같습니다」라고 있고, [사 11:10(칠십인역)]에는 「이새의 뿌리에서 싹이 나서 이방 민족을 다스릴 이가 일어날 것이니, 이방 민족은 그에게 소망을 둘 것이다」했습니다」라고 있다. [사 66:18-20]도 같다.

O<내가 그들을 쇠로 된 왕홀로 부수며 질그릇 부수듯이 부술 것이다>: <그리스도의 나라>는 <육의 망상>과는 달리, <쇠와 무기>로 마련되거나 유지될 수 없다. [시 147:10-11]에는 「주님은 힘센 준마를 좋아하지 않으시고, 빨리 달리는 힘센 다리를 가진 사람도 반기지 않으신다. 주님은 오직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과 당신의 한결같은 사랑을 기다리는 사람을 좋아하신다」라고 있고, [고후 10:4-5]에는 「싸움에 쓰는 우리의 무기는 육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요새라도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는 궤변을 무찌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부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라고 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나라>는 <의와 진실[=진리]과 평화[=평안]>안에 있다.

O<나의 왕>은 이와 같이 <말씀의 직책>을 가지고 계신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칙령을 선포하겠다>라고 있지, <나는 힘센 준마에 올라타서 도시들을 파괴하고 땅의 보화들을 모으려고 한다>라고 있지 않다. <나의 왕>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칙령[=복음]은 이것이다.[롬 1:1-3-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따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그의 아드님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O<그리스도의 말씀>은 <구원과 평안과 생명과 은총의 말씀>이므로, 그것은 ‘영’안에서 작용한다. [삼상 2:6-8]에는 「주님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로 내려가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다시 돌아오게도 하신다. 주님은 사람을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요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라고 있다. <생명과 구원의 하나님>은 당신의 <본래의 일>, 즉 <생명과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먼저 <다른 일>, 즉 <사망과 멸망>을 행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당신 뜻을 세우시기 위하여, 또한 영과 영의 생명에 대한 열망을 깨우시기 위하여> <우리 뜻을 죽이시고, 우리의 육과 육의 욕심을 죽이신다.>

O‘왕홀’은 <그리스도의 거룩한 복음>을 가리킨다. [시 45:7]에는 「당신의 왕홀은 공정의 왕홀입니다」라고 있고, 또 [시 110:2]에는 「주님께서 당신 권능의 왕홀을 시온으로부터 뻗쳐 주시리니 당신께서는 원수들 가운데에서 다스리소서」라고 있다. <그리스도의 입의 왕홀>은 <세상적인 것을 따르는 자들을 치는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이 <영의 말씀>은 악인을 죽

인다.

O‘죄’의 의미는 무엇인가? 1)죄는 ‘육’에 대하여 강고하므로, <눈의 정욕, 탐욕, 교만, 인색, 육의 욕심과 쾌락의 욕심>을 <가난과 겸손과 인내로써> 없앤다. 2)죄는 <불변의,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올곧음=정의>를 가리킨다. [왕하 18:19-21]에는 「랍사게가 말했다. “히스기야 왕에게 전해라. 너는 부러진 갈대 지팡이 같은 이집트를 의지한다고 하지만, 그것을 믿고 붙드는 자는 손만 찢리게 될 것이다」라고 있다. <인간의 가르침>은 그런 <갈대 지팡이>와 같다. 그러나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 즉 <세례자 요한의 전도>는 <흔들리지 않는 올곧은 왕홀>과 같다.

O<나에게 청하여라. 내가 못 나라를 너의 재산으로, 땅 끝까지 너의 소유로 주리라>를 그리스도는 [마 28:18]에서 이렇게 해석하셨다:「부활하신 예수께서 열 한 제자에게 이르셨다. “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예수님께서서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드님, 그리스도[=메시아]>이시다.

3)칼빈의 해석

①7절의 해석

O이 말씀은 다윗에게도 해당되지만, <그리스도>께 더 적절히 적용된다. 그리고 다윗도 <예언의 영>에 감동되어, 이 구절을 노래했을 것이다. 그리스도도 <자신의 기적들과 복음선포>에 의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증거를 제시하셨다. <사도들과 전도자들이 한 복음선포>는 실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에 의하여 말씀하신 것>이다.

O<내가 너를 낳았다>:이는 우선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신 것이 드러난 것>을 가리킬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또한 <그리스도>께 적용될 수 있다. 즉 <그리스도의 영원한 탄생>으로 설명될 수 있다.

O<오늘>;1)루터 등 많은 주석가들은 이를 <시간과 관계없는 영원한 행

위>라고 해석하는데, 2)바울 사도 자신의 해석[=행 13:33-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어 그들의 후손인 우리에게 실현시켜 주셨습니다. 이는 시편 제2편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노라!]>에 따르면,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는 <그 존재[=하나님의 아드님]으로 존재하기 시작했다>의 뜻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드님이심이 세상에 드러난 부활의 날>의 뜻으로 된다. [롬 1:4-거룩한 영으로 는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시어 힘을 지니신 하나님의 아드님으로 확인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행 13:33]도 같다.

○<낳았다>의 의미: 이것은 <처음부터 성부의 거룩한 품 안에 감추어졌다가, 그 뒤에 율법 아래서 희미하게 나타나 있다가, 신약시대에 하나님의 아드님의 근거있고 명백한 표를 가지고 오신 때부터 하나님의 아드님으로 알려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다. [요 1:14-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 은총과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의 외아드님으로서 지니신 영광을 보았다]

<이 부활의 날>에 대하여 [시 118:24]에서는 「이 날은 주님이 구별해 주신 날, 우리 모두 이 날에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자」라고 있다.

②8-9절의 해석

○[요 17:5-아버지, 세상이 생기기 전에 제가 아버지 앞에서 누리던 그 영광으로, 이제 다시 아버지 앞에서 저를 영광스럽게 해 주십시오]. 이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살리려는 당신 공로를 십자가 위에서 이루실 것>을 가리킨다.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위하여 아드님을 파견하심으로써 그리고 부활하게 하심으로써 당신 영광을 드러내신다.>

또[빌 2:9-하나님께서도 그리스도를 드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분께 주셨습니다]라고 있다. ‘8절’에서 말해지고 있는 것은 비록 다윗왕이 위대하더라도 다 성취하지는 못한 것이다. 그러므로 ‘8절’은 <그리스도>께 적용되어야만 한다. 또한, ‘8절’에서는 <이방 민족의

부르심>도 말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O‘8-9절’은 다윗왕에게도 물론 적용될 수는 있지만, <그리스도>께 더 잘 적용된다. 그것도 <칼이나 창>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입의 숨결>으로써! 그리스도는 그분의 적에게는 이토록 두렵고 엄격하시지만, 자기 백성에게는 인자하시다. [시 110:5]에는 「주님께서 당신(=왕)의 오른쪽에 계시니, 그분께서 노하시는 심판의 날에, 그분께서 왕들을 다 쳐서 흡으실 것입니다」라고 있고, [사 61:1]에는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겸손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 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 하게 하셨다」라고 있다.

O‘쇠로 된 왕홀’은 <그리스도의 입의 숨결>로 보아야 한다. 어떤 측면에서 복음이 <쇠로 된 왕홀>이 되는가? 그것은 복음이 <영적 무기>이기 때문이다. [살후 2:8-10]에는 「그 때에 무법자가 나타날 터이지만, 주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의 입김으로 그자를 멸하시고 당신 재림의 광채로 그자를 없애 버리실 것입니다.」라고 있다. 악인들의 어리석은오만은 돌보다 더 완고하지만, 결국 질그릇보다 더 연약할 뿐이다.

4)델리취의 해석

‘7절’이 1)다윗 자신을 가리키든, 아니면 2)다윗의 자손을 가리키든, 아니면 3)다른 다윗을 가리키든 그 최초의 <이런 칙령>은 [삼하 7:12-16]의 나단의 예언에 있다:「너의 생애가 다 해서 묻히면, 내가 네 몸에서 나올 자식을 후계자로 세워서, 그의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토록 튼튼하게 해 주겠다. 나는 그의 아버자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이어질 것이며, 네 왕위가 영원히 튼튼하게 서 있을 것이다. <영원한 통치의 약속>은 결

국 <아훼의 영원하신 아드님>을 가리킨다. [시 89:26-27-그는 나를 불러
당신은 나의 아버지, 저의 하나님, 제 구원의 반석이십니다. 하리라. 나도
그를 만아들로, 세상 왕들 가운데 으뜸가는 왕으로 세우리라]

5)바이저[Weiser]의 해석

이 기사는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아시리아나 이집트의 제왕>에게 더 어울린다.

(4)10-12절의 주해

1)안소근 교수

①11절의 해석

<떨며 그분의 발에 입맞추어라>[=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여라]
라고 번역된 부분은 <히브리어 본문>이해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리스어
칠십인역>을 따라 <훈계를 받아 들여라>로도 번역한다. <입을 맞추는 것>
은 <새 왕에게 바쳤던 존경과 복종의 표시>였다.

②12절의 해석

<행복하여라, 그분께 피신하는 이들 모두>[=주님께로 피신하는 사람은
모두 복을 받을 것이다]: 이는 [시 1:1-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
지 아니하며 . . .]와 수미쌍관을 이룬다. 아마도 본래는 <시편 1편>과
<시편 2편>은 <하나의 시편>이었을 것이다.

2)루터

①10절의 해석

O여기서 <세레자 요한의 검손>을 본다. 세레자 요한은 그리스도의 정
수리에 손을 대는 것도 전율했다. 세레자 요한은 그리스도에게 모든 의가
성취되도록, 요르단 강의 물로써 즉 <검손의 물>로 세레를 주어야 한다.

<지고하신 분>이 <가장 낮은 자리>에 겸손히 내려오신 것이다. [시 32:9-너희는 분별없는 노새나 말처럼 되지 말아라]. 여기서 <분별력>은 철학적 지혜가 아니라, <순경이든, 역경이든 사람이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하는 믿음>을 가리킨다. 믿음은 <인간의 생각, 정신, 이성, 분별력이 이해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삼켜 버리는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왜냐하면 믿음은 영혼을, <볼 수 없고, 말할 수 없고, 영원하고, 생각조차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과 결합시키며, 영혼을 <모든 보이는 것>에서 분리시키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서는 이것을 선포하신 것이고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이고 부활이다>.

O<왕과 통치자>는 여기서는 <우리 모두>를 가리킨다.

<지혜롭게 행동하고, 경고를 받아들여라>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성서를 연구하고 매일 교리문답서에서 배워라!>라는 뜻이다.

[*Katechismus(카테히스무스):독일어-교리(신앙)문답서, 입문서; 세례지망자(구도자)에 대한 교리교서==catechism: 캐터기즘:교리문답서=공교교리(公敎敎理): (the Catechism-영국 국교회파의 공회(公會) 문답; (일반적으로) 문답식 입문서]

[1. 그리스도교의 신앙의 가르침을 문답형식으로 만든 지침서(특히 강의를 위한 것임).

2. 루터의 설교들로부터는

(1)대(大)교리문답서[Grosser K.][이는 성직자들과 전도자들을 위한 것임]와, (2)소(小)교리문답서[Kleiner K.][이는 가정(家長)들을 위한 것임]가 만들어졌는데 모두 1529년에 나옴.

3. 그 내용은, 1)십계명, 2)신앙고백, 3)주기도문, 4)세례, 5)성찬, 6)고해성사, 7)낮기도 등으로 되어 있고, 루터교회에서는 지금도 높은 명망을 얻고 있음.

4. <루터의 교리문답서>를 의지하여 1)<칼빈주의적>인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서>[Heidelberber Katechismus]와 <칼빈>의 <제네바 교리문답서>가 나왔음.

5. <가톨릭의 교리문답서>는 <종교개혁자들의 이들 교리문답서들>에 대항하기 위하여 <가톨릭 대교리문답서-성직자들을 위한 것>와 <가톨릭 소교리문답서-평신도들을 위한 것>이 나왔음[1566년]. 이 들 가톨릭 교리문답서들은 1992년에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승인한 <새 가톨릭 교리문답서들>로 이어지고 있음.

6.<교회용어사전:생명의 말씀사>- [‘교리문답’은 <그리스도교의 교리를 문답식으로 가르치는 형태나 책이다. 종교개혁을 지나면서 교리문답은 급속도로 발전되었다. 이는 중세기에 일반 성도를 대상으로 한 신앙 교육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따라서 종교개혁 이후 모든 성도에게 신앙의 본질에 대한 교리의 이해가 요구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유명한 종교개혁자들은 대부분 교리문답을 썼다. 중요한 교리문답서로는 루터의 <대소 교리문답>, 칼빈의 <대소 교리문답>, <웨스트민스터 소 교리문답>이 있다. 한편, 모든 교리문답의 기본 내용은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에 성례와 성경에 대한 내용이 추가되기도 한다. 교리문답 교육과 성서교육은 상호 보완적이어야 한다.]

②11절의 해석

○여기서 ‘두려움’과 ‘섬김’, 그리고 ‘떨림’과 ‘기쁨’은 모순된다. 왜냐 하면 ‘두려움’은 <증오와 소원함>을 가져오고, ‘떨림’은 <기쁨>과 대립되기 때문이다. 또한 이는 [시 100:2]과도 모순된다. :「기뻐하며 주님을 섬겨라」

우리는 바울 사도의 [고전 1:21]을 해결책으로 들으려고 한다: 「세상은 하나님의 지혜를 보면서도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복음선포의 어리석음을 통하여 믿는 이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O이 의미는 <평안과 행운 가운데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가질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십자가와 불운 가운데서 알아보고, 찬양할 수밖에 없고, 또한 그것이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한다. 안전함 가운데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길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고, 떨림 가운데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한다>라는 뜻이다. 세상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의도적으로 왜곡시키므로, 하나님도 또한 세상의 모든 것을 의도적으로 비트신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고, 복음선포의 어리석음>인데, 하나님은 이것을 통하여 믿는 사람을 구원하신다.

O'9절'과 함께 이것의 의미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왕홀로 다스리시고,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의 말씀으로써 부수실 때, 그리고 그것도, 당신에게 모든 것을 복종시키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명령에 따라서 부수실 때, 너희는 두려움 안에서,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내하며, 겸손히 지면서,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이다. 우리는 [시 78:9-11]에서의 에브라임의 자손들같이 되지 않아야 한다:「에브라임의 자손들이 전투의 날에 등을 돌렸다. 그들은 하나님과 맺은 계약을 지키지 않고, 그분의 가르침에 따르기를 거절했다. 그들은 그분이 이루신 일들과 그분이 보이신 기적들을 잊어버렸다」

O[요 9:28-35]에도 이렇게 있다:「내가 겪는 이 모든 고통이 다만 두렵기만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죄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것임을 압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중재할 사람이 없구나! 내게 소원이 있다면, 내가 더 두려워 떨지 않도록, 하나님이 채찍을 거두시는 것. 그러나 나 스스로는, 그럴 수가 없는 것을 알고 있다」 우리가 <에브라임의 자손들>처럼 되지 않도록 두려워하지 않으면, 우리는 [마 7:26-27]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자>처럼 된다. 그러면 우리는 결코 환난 때에 견디지 못할 것이다:「나의 이 말을 듣고서도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자기 집을

지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들이치니, 무너졌고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다」 <이런 두려움>은 일생 동안 그리고 모든 자신의 행위 안에서, <자신이 지고 가는 십자가>가 될 것이다.

O이는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나는 과거 젊었을 때는 [이는 루터의 1538년의 말임], 이 구절 즉 [하나님을 두려워해라!]를 싫어했다. 왜냐 하면 그 때는 아직 <사람이 ‘두려움’을 ‘기쁨과 희망’과 섞어야 한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이다. 나는 그 때는 아직 <인간의 행위>와 <그리스도의 행위[=역사하심]>를 구별할 줄 몰랐다.

그러나, 이제 내[루터]는 안다. <우리의 행위는, 우리의 본성처럼 악하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안전하다고 안심하면 안된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행위는 거룩하고 완전하시다. 그래서 우리는 [금홍하심의 희망]을 가져도 좋다! 왜냐 하면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 때문에 <사람으로 태어나시어 율법 아래 계셨던 것>도, <십자가에 못 박혔던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한 값없는 선물>이기를 원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해야 하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기쁨>이 완전히 배제된 것은 아니다! 우리의 위로받은 심령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와 화해하셨다는 확고한 확신을 가진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한다.>

O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왕을 기뻐하며, 그리고 동시에 경외하면서 섬겨라> 이것이 <진정한 영적 기쁨>이고 <육적 기쁨>이 아니다. 그러므로 ‘기쁨’에는 ‘두려움’이 섞여져야 하고, ‘두려움’에는 ‘희망’이 섞여져야 한다.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동시에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 이것이 올바르게 서로 맞추어지면, 우리의 온 삶은 의롭고, 거룩하다. 이 구절은 <기뻐하고 두려워하라>로 요약된다.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신다. 즉 <너희는 언제나 기뻐해야 한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함

께 있어야 한다!>

③12절의 해석

O<불가타라틴어 성서>에는 <교훈을 배워라! 너희가 바른 길에서 벗어나서 주님께서 진노하시지 않으시도록!>이라고 번역하고 있다. <히에로니무스=제롬>은 <온전히 경배하라!>라고 번역한다. <히브리어 성서>에는 <낫쉐쿠 바르=그 아들에게 입맞추라>로 되어 있다. 제롬은 ‘바르’가 <순수하고 선택된>으로도 번역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번역을 한 것이다. [그의 <주해서>에서는 ‘바르’가 ‘아들의 의미도 있으니까 <아드님에게 입맞추라!>로 번역될 수 있다고 쓰고 있음]. 예컨대 <시몬 바르 요한나=요한의 아들 시몬> , <바르나바=바나바=예언자의 아들>을 들 수 있다. <리라>는 <아드님에게 입맞추라>로 번역한다. 즉 <아드님에게 입맞추라>는 또한 <주님이시며 또한 왕이신 그리스도를 경외와 겸손으로써 받아들여라!>라는 뜻이기도 하다. 마리아 막달레나는 땅에 몸을 겸손히 던지고 예수님의 발과 발자국에 입맞추었다.

O내[루테]는, <아드님에게 입맞춘다>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우리의 진정한 훈육[=훈련]>임을 나타낸다고 본다. 즉 <그리스도를 믿는 것> 즉 <아드님에게 입맞추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자기 자신 안에 지니고 다니는 것>이란 뜻이라고 본다. [갈 6:17-나는 내 몸에 예수님을 위하여 받은 박해로 생긴 상처 자국을 지고 다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그 육신에 입맞출 수도 없고, 붙잡아 둘 수도 없다.>그러므로 <오직 영 안에서만> 즉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수난을 기꺼이 받아들이므로써> 그리스도께 영 안에서 입맞출 수 있고 붙잡을 수 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수난을 통하여 우리는 훈련받는다. [히 12:11-징계[=훈육]는 어떤 것이든지 그 당시에는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으로 여겨지지만, 나중에는 이것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에게 평화와 의로움의 열매를 가져다 줍니다.] 결국 <불가타성경의 번역>이 문자적으로는 틀렸지만‘

바르'는 '훈육' 또는 '훈련'의 의미가 없기 때문임), 의미상으로는 매우 올바르다고 본다.

O<그렇지 않으면 그분의 진노하심이 지체없이 너희에게 이를 것이다.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 부분의 의미는 <그리스도께 신속히 경배하라! 너희가 그의 진노로 망하지 않도록! 또 너희가 그의 진노가 아직 멀리 있다고 자신을 속이지 않도록!>이다. 그러나 그의 진노는 신속히 불타 오를 것이다. 갑자기 너희가 생각하지 못한 때에 그가 올 것이다! [마 24:48-50-그가 나쁜 종이어서, 마음 속으로 생각하기를, '주인이 늦게 오시는구나'하면, 그 종을 처벌하고, 위선자들이 받을 벌을 내릴 것이다]. 또 [살전 5:2-3-주님의 날이 밤에 도둑처럼 온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하고 말할 그 때에, 갑자기 멸망이 그들에게 닥칠 것이니, 그것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라고도 있다. 이것은 <경악할 경고>이다. 마지막으로 <참으로 아름다운 종결구>가 있다! <그분을 신뢰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도다!>

O<아드님에게 입맞추어라[=경배하라!] 그분을 두려움으로 섬겨라! 그리고 주님을 신뢰하는 모든 사람은 구원받을 것이다!> 이것이 '12절'의 요약이다. 하나님 자신이 '주님'이신 한, 그리스도께서도 '주님'이시고, 영원히 '주님'으로 계신다! 왜냐 하면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그리스도께 모든 것에 대한 권세를 넘겨주셨기 때문이다.

3)칼빈

①10-11절의 해석

O여기서 다윗은 <악인=불신자>에게 회개를 호소한다. 이 호소는 모든 사람에게 대한 호소이기도 하다. <지혜의 시작은, 사람이 자신의 오만을 내려 놓고, 그리스도의 권위에 자신을 맡길 때>라고 다윗은 말한다. 가장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②12절의 해석

O[요 5:23-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자는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다]. ‘바르’는 ‘아들’인 동시에 ‘선택된 사람’을 가리킨다. 그리스도는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택하신 분이시며, 모든 권세를 그에게 주셨으니, 사람과 천사 위에 뛰어나신 분이다. [요 6:27-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람의 아들[=인자]을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O믿는 사람에게는 <마지막 절의 위로>가 따른다.[율 2:32-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불러 구원을 호소하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여기서 <그분을 믿는 사람>의 ‘그 분’은 하나님에게도, 또한 그리스도에게도 적용된다. 그러나 <시편 2편.전체를 보면, <그리스도>가 더 적절하다!

4)바이저[Weiser]의 해석

O여기서는 <이방 민족의 회심>이 선포된다. <시편 2편>의 <하나님에 대한 조건없는 경외>는, <신약성서>에서 <시편 2편>을 <메시아적 의미>에서 해석하고, 그것을 예수님께 관련시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한다. [행 13:33]과 [히 1:5]과 [히 5:5]이 대표적이다.

3. 총괄

O<시편 2편>은 <군왕 시편>인데, 여기서 언급되는 모든 주해자들이 일치하여 말하듯이, <시편 2편>은 동시에 <메시아[=그리스도]를 예언하는 시편>이기도 하다고 생각된다.

O멜란히톤[Melanchthon:인문주의자이며 종교개혁자: 1497-1560]의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요 10:28-29]에서 이렇게 위로에 찬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 가지 못할 것이다. 아무도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 가지 못한다」

-최후의 심판이 이르기까지 그리스도 에클레시아와 그리스도신자들은 핍박을 받아야 하며, 그리스도의 나라는 영적인 것이다. 그리스도의 나라의 큰 보화와 힘은 ‘죄의 용서’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해하신 것이며, 은혜로우신 것이다. 그리스도의 나라는 영적인 것이다. [요 17:2]에서 예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신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는 것입니다.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에클레시아는 이 세상에서는 고난과 핍박을 당하게 될 것이다. [롬 8:17-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상속자입니다]에서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고, [마 16:24]에서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오너라.”」라고 있으며, [딤후 3:12]에서는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마지막 부탁으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모두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진실로 <마지막 심판>이 있기 전에 <적(敵)그리스도의 통치>가 있을 것이고,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적그리스도의 나라를 폐하실> 것이다. [벧후 3:3-15]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여러분이 무엇보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자기들의 욕망대로 살면서, 여러분을 조롱하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어찌되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만은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는 하루가 천 년 같고, 천 년이 하루 같습니다[시 90:4].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녹아 버릴 터인데,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 날을 앞당기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주님의 약속을 따라 의가 깃들어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으니, 티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힘쓰십시오. 우리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유다인들은 <메시아 왕국> [=그리스도의 나라]에 대하여 말하면서, 마치 <세상의 나라>에 대하여 말하는 것과 같은 말은 사용하는 <이사야>나 <예레미야> 예언자의 말을 인용하고 있다. 그러나 <복음서>와 <사도들의 글>에서는 <그리스도의 나라>는 영원하고 영적인 것이라고 말하며, 이 때에는 <핍박을 받게끔 되어 있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언서>들을 <복음>에 따라서 <해석>해야만 한다. <사도들> 자신들도 <사도행전> [2자의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와 13장의 바울 사도의 비시디아의 안디옥에서의 설교 등]에서 <다윗 왕국에 대하여 약속된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영적인 나라와 에클레시아>에 대한 말로 이해하고 있고, 그리스도 에클레시아는 <이 땅에서 환난과 핍박을 당하게 되어 있다>고 보고 있다.

-더 나아가, <예언자>들 자신이 <메시아 왕국=그리스도의 나라>는 <영적>이라고 선포하고 있다. [사 53:10-12]에서도 이사야 예언자는,

「주님께서 그를 상하게 하고자 하셨다. 주님께서 그를 병들게 하셨다. 그가 그의 영혼을 속죄제물로 내놓으면, 그는 자손을 볼 것이며, 오래오래

살 것이다. 주님께서 세우신 뜻을 그가 이루어 드릴 것이다. “고난을 당하고 난 뒤에, 그는 생명의 빛을 보고 만족할 것이다. 그는 많은 사람들을 의롭게 하고 그들이 받아야 할 형벌을 자기가 짊어질 것이다. 그는 죽는 데까지 자기의 영혼을 서슴없이 내맡기고, 남들이 죄인처럼 여기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는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졌고, 죄 지은 사람들을 살리려고 중재에 나섰다.”」

-예언자들은<그리스도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고 선포했는데, 그 어떤 <세상 나라>도 이 땅 위에서는 영원하지 않으므로, 예언자들이 사용하는 말들이, 마치 <세상의 왕국>에 대하여 말하듯이 들릴지라도, 실은 그것은 <영적인 나라>를 가리키는 것이고, 따라서 <영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이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는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과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에클레시아 안에서 시작했지만, <이 땅 위에서 에클레시아는 핍박을 받으면서, 온갖 유혹과 환난 가운데서도 유지되고>, <마침내 미래의 영생에서 이루어지고, 영원히 존재할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나라>와 <에클레시아>가 <이 땅에서>, <마지막 심판>이 이르기 전에 당하게 될 <핍박>에 대하여 [시편 2편]에서도 그렇게 말한 것이다. :

「어찌하여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야훼와 그 기름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이르기를 “이 족쇄를 벗어 버리자. 이 사슬을 끊어 버리자”하는가?」

4.성서본문

(1)히브리어 성서

1)<한글 음역>과 <어순에 따른 번역>

1절:람마 라케슈 고임 올레움밌 예흐구 리크[어찌하여, 분노하며, 열방이, 민족들이, 경영하는고, 허사를]

2절:이트앗체부 말레케 에레츠 웨로제님 모세두 야하드 알 아도나이 웨알 메쉬히나서며, 군왕들이, 세상의, 관원들이, 꾀하여, 서로, 대적하며, 야훼, 와, 그 기름부음 받은 자를]

3절:네나테카 에트 모세로테모 웨나설리카 밌멘누 아보테모우리가 끊고, -, 그 맨 것을, 벗어 버리자 하도다, 우리에게서, 그 결박을]

4절:요셉 밧솜마임 이세하크 아도나이 일르아그 라모계신 이가, 하늘에, 웃으심이며, 주께서, 비웃으시리로다, 그들을]

5절:아즈 예다벨 엘레모 베얏포 우바하로노 예바할레모[그 때에, 이르시기를 - 하시리로다, 그들을, 분을 발하며, 놀라게 하여, 진노하시]

6절:와아니 나사케티 말arki 알 치온 할 카데쉬[내가, 세웠다, 나의 왕을, 예, 시온, 산, 내 거룩한]

7절:아사페라 엘 호크 아도나이 아마르 엘라이 베니 얏타 아니 하욤 엘리데티개[내가-전하노라, 을, 명령, 야훼의, 야훼께서-이르시되, 내게, 내 아들이라, 너는,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

8절:쉐알 밌멘니 웨에테나 고임 나할라테카 와아훗자테카 아페세 아레츠구하라, 내게, 내가-주리니, 열방을, 네 유업으로, 네 소유가, 끝까지 이르리도다, 땅]

9절:테로앰 베쉐베트 바르젤 키켈리, 요철크, 테나페첸[내가-그들을 깨뜨림이며, -장으로, 철, 그릇같이, 질, 부수리라 하시오다]

10절:웨얏타 맬라킴 하세킬루 히와세루 쇼페테 아레츠[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교훈을 받을지어다, 재판관들아, 세상의]

11절:이베두 에트 아도나이 베이르아 웨갈루 비르야디[섬기고, -, 야훼를, 경외함으로, 즐거워할지어다, 떨며]

12절:낫쉐쿠 바르 펜 예에나프 웨토베두 데레크 키 이브알 김아트 얏포

아쉬레 콜 호세 보(켈)[입맞추라, 그의 아들에게,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망하리니, 길에서, -, 급하심이라, -, 그의 진노가, 복이있도다, 대(=모든 사람은), 피하는 사람(=의지하는 사람은), 아훼를]

(2)<그리스어 칠십인역>[히브리어 성서와 비교한 중요 발췌 구절]:한글 음역과 영어번역<NETS>과 독일어번역<Septuaginta Deutsch>를 종합한 번역

2절:파레스테산 호이 바실레이스 테스 게스 카이 호이 아르콘테스 쉬넥 떼산 에피 토 아우토 카다 투 퀴리우 카이 카타 투 크리스투 아우투 디앞 살매[=땅의 왕들이 나란히 섰으며, 통치자들이 함께 모여 주님과 그분의 기름부음 받은 이(his anointed)에 대항하였다]

4절:호 카토이콘 엔 우라노이스 에크겔라세타이 아우투스 카이 호 퀴리오스 에크릭테리에이 아우투스[=하늘에 계시는 이가 비웃으실 것이며 주님께서 그들을 조롱하실 것이다]

5절:토테 랄레세이 프로스 아우투스 엔 오르게 아우투 카이 엔 토 뤼모 아우투 타락세이 아우투스[=그 때에 그분은 그들에게 그분의 진노 속에서 말씀하실 것이며, 그분의 분노 속에서 그들을 놀라게 하실 것이다]

6절:에고 데 카테스타펜 바실류스 휘프 아우투 에피 시온 오로스 토 하기온 아우투[=“그러나 나는 그분에 의하여 왕으로 세워졌다. 시온에! 그분의 거룩한 산에!]

7절:디아겔론 토 프로스타그마 퀴리우 퀴리오스 에이펜 프로스 메 휘오스 무 에이 쉬 에고 세메론 게겐네가 세[=그 때에 내가 주님의 칙령을 선포한다: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11절:둘류사테 토 퀴리오 엔 포보 카이 아갈리아스페 아우토 엔 트로무[=주님을 두려움으로 섬기고 떨림으로 그분을 기뻐하라!]

12절:드락사스페 파이데이아스 메포테 오르기스페 퀴리오스 카이 아폴레이스페 엑스 호두 디카이오스 호탄 에크카우페 엔 타게이 호 뤼모스 아

우투 마카리오이 판테스 호이 페포이또테스 에프 아우토[=주님께서 진노하시지 않도록 교훈을 받아들여라! 그분의 진노가 급하시면, 너가 바른 길에서 벗어나 망할 것이다.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은 모두 복이 있다!]

예수전(202)

塚本虎二(김 형 철 역)

제210강 비아 도로로사

마가 15장 22절 (마태 27:33, 누가 23:32-33a, 요한 19:17)

22 병졸들은 예수를 끌고다라고 하는 곳---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데리고 갔다.

예수는 로마 병졸에게 땅바닥에 끌리듯이 예루살렘 거리를 형장으로 끌려갔다. 간신히 5, 6명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지나갈 정도로 좁은 길이기 때문에 그 행렬로 거리는 가득 차고 양편의 창이란 창은 사람의 얼굴로 가득하였다. 누가에만 있는 기사인데 두 죄수도 함께 끌려갔다(23:32). 그리고 그 행렬은 성문을 나서서 끌고다라고 하는 형장에 닿았다.

예수의 재판이 벌어졌던 총독 빌라도의 관저가 보통 믿고 있는 대로 성전 경역의 서북단에 있는 안토니아 성채, 지금의 병영이 있는 곳이었는지 또는 윗동리의 서북단의 해롯 궁전이었는지에 대해서는 학자의 의견이 아직껏 일치하지 않는다. 그리고 끌고다의 소재에 대해서는 다음 강에서 설명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아직 정설이 없다. 보통으론 오늘날의 성묘교회가 있는 곳이라고 하고 예수는 안토니아에서 이곳까지 걸으셨다고 여겨 이 행로를 비아 도로로사(Via dolorosa “고난의 길”이란 뜻)라고 하여 순례의 장소가 되어있다. 그러나 우리들은 지금 순례자가 걸어 다니고 있는 이 행로의 역사적 정확도를 연구하려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이른바 신자들 중에는 이 길을 걷는 것을 제법 무슨 선한 일이나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자도 있어서 그에 대한 우리들의 신앙적 입장을 밝히기 위하여 간단히 설명을 하려는 것뿐이다.

로마 가톨릭교회는 이 행로를 “십자가의 길” Via crucis라고 부르며 13세기 이래로 프란시스코 교단에 그 감호를 맡기고 있는데 이미 그 전부터 이 수난의 길 요소 요소에 돌이나 예배당으로 몇 개의 소위 “Statio”(유소)라는 것을 만들어, 순례자는 그리스도의 무덤이라고 믿어온 “성묘”에서 철야한 후 기도를 드리면서 지금과는 반대로 성스러운 순행을 하여 빌라도의 관저 앞 즉 안토니아에서 순례를 마쳤다고 한다. 현재는 안토니아를 출발점으로 하여 14곳의 Statio(유소)가 설치되어 순례자는 각 정류소마다 걸음을 멈추고 찬송가를 부르고 기도를 하면서 제14 유소인 성묘까지 가는 것으로 되어있다.

성전 자리의 북쪽에 스데반 문에서 성전과 병행하여 서쪽으로 가는 시청 마리아م 거리가 옛날의 빌라도 관저라고 불리고 있는 지금은 병영이 되어 있는 곳에 오면 우측으로 프란체스코파의 예배당이 있다. 이곳이 성서에서 말하는 가바다인데(요19:13), 그곳이 출발점인 제1의 유소이다. 여기서 예수는 빌라도에게 사형집행을 받았다고 한다. 근년 여기서 다다미 반장 넓이에 두께 30센티 정도 되는 로마풍의 부석(敷石) 한 조각을 발견하였다고 한다.

병영으로 오르는 계단 아래에 제2의 유소가 있다. 예수가 십자가를 지신 곳이라고 이른다. 그 조금 앞 우측으로 프란체스코파의 수도원이 있고 그곳에 소위 엑세호모 아치가 있다. 이 수도원에는 로마병졸들이 주사위놀이를 하였던 반(盤)이란 것이 있다.

거기서부터 160-70미터쯤 가면 다메섹문에서부터 오는 거리와 만나고 좌측으로 꺾이는 모서리에 아르메니아인의 수도원이 있다. 그 모서리에서 조금 가면 제3의 유소가 있다. 여기서 예수는 십자가의 무게를 못 이겨 쓰러지셨다. 그 길을 좀 더 간 좌측에 제4 유소가 있다. 예수가 어머니 마리아와 만난 곳이라 한다. 조금 가서 오른쪽으로 에스 세라이 거리를 서쪽으로 가게 되는 곳이 제5, 여기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의 십자가를

졌다고 한다. 좌측의 어느 집 모서리에는 예수의 손자국까지 남아있다. 조금 그 거리를 오르면 예수에게 손수건을 건네주었다는 베로니카의 집이 있다(제38강 참조). 그곳이 제6이다. 이 손수건은 지금도 바티칸에 보존되어 있는데 10년 전쯤에 현미경으로 검사하였던 바, 분명하게 피가 묻어있었다고 런던 타임즈에 나와 있었다. 구태여 미신이라고 내세울 것은 없을지 모른다.

이 길이 다메섹거리와 만나는 곳에 제7 유소가 있다. 정의의 문이라고 이르며 여기서 예수는 성을 밖으로 끌려 나갔는데 이곳에서 다시 십자가 아래 쓰러지셨다. 또 조금 가면 그리스교의 수도원이 있고 벽에 흑십자가 있는 곳이 제8 유소, 이곳에서 예수는 예루살렘 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로써 비아 도로로사의 바깥 부분이 끝나고 예수가 세 번째 십자가 밑에 쓰러지신 곳이 제9, 별거벗긴 곳이 제10, 못 박힌 곳이 제11, 십자가 상에서 죽은 곳이 제12, 십자가에서 내려진 곳이 제13, 무덤에 묻힌 곳이 제14, 이 여섯의 유소는 성묘교회 안에 있다. 십자가의 길의 전체 길이는 500미터 정도이다.

이상은 예루살렘에 있는 십자가의 길인데 15세기경부터는 유럽에서 수도원 곁에 그 모형을 만드는 일이 허용되고 18세기 이후에는 그밖의 장소에도 만들 수 있도록 되었다. 그리고 교황의 허가만 있으면 개인에게도 그것이 가능해졌다. 산의 언덕길 같은 곳에도 만들고 각 유소에는 그리스도 수난의 그림이나 조각을 장식하고 나무 십자가를 세운다. 수도승이 그 곳에서 무언가를 읽고 순례자가 주기도와 아베 마리아 등을 부른다.

즉 십자가의 길은 단순한 그리스도 고난의 고적이 아니고 가톨릭의 신앙이다. 이 십자가의 길을 순례하는 데 공덕이 따르는 것이다. 가톨릭이 정한 바에 의하면 이 길을 걸음으로써 죄의 용서를 받는다. 따라서 이 순례를 행하는 데 있어서 가톨릭 법상 복잡한 규칙이 있다. 즉

사유(敍宥)를 받기 위해서는 사적 기도에서는 각 유소를 걷는 것이 필요하다. 공동의 십자가 길의 수행에는 적어도 이를 선창하는 사제가 두 사람의 시종인 또는 성가대원과 함께

각 유소를 걸어야 한다. 신자는 각 유소마다 적어도 무릎을 꿇어야 한다(1918년 성좌공보).....그러나 사유를 받기 위해서는 항상 통회하는 마음으로 예수수의 고난을 묵상하도록 정해져있다. 1931년10월20일의 교황령에 의하면 십자가의 길을 합법적으로 행할 때마다 전 사유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의 설정일이나 그로부터 1개월 이내에 10회 십자가의 길을 행하고 또한 성체를 받은 자에게는 더더욱 전 사유가 주어진다.....십자가의 길의 각 유소를 찾아가는 것이 정당한 이유로 할 수 없는 자도 그 때문에 권한 있는 사제로부터 축복 받은 십자가상을 손에 쥐고 또 그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몸에 지니고.....주기도문, 천사 축문, 영송 20회를 부르는 자는 십자가의 길의 사유를 받을 수 있다.....중병인은 오늘날에는 이같은 십자가를 숭배하는(입맞춤, 숙시(熟視) 등) 것으로 족하다고 인정받는다. (1931, 33년 성좌공보). 이상 [가톨릭대사전]에 의거함.

면죄라고 하면 16세기의 종교개혁 당시를 떠올리는 독자 여러분은 20세기의 오늘날에도 백주에 공공연히 그것도 자못 엄숙하게 이같은 일이 행해지고 있다는 것에 놀랄지 모르나 그러나 그것은 우리들의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실이다. 그것도 가톨릭의 근본 신앙에서 파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톨릭교회가 존속하는 한 더욱 번성할지언정 쇠퇴할 일은 없을 것이다.

유명한 탐험가 스웬 헤딘---일본에도 두 번 온 일이 있고 나도 학생시절에 그의 이야기를 들었다---은 그의 [예루살렘]에서 이 십자가의 길에 대하여 쓰기를 “예루살렘의 모든 신성한 장소 중에서 비아 도로로사 이상으로 깊은 인상을 주는 것은 없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제1유소에 대하여 “여기서 비아 도로로사가 시작된다. 그곳은 세계역사상 최대의 희곡의 장면이다. 어떤 다른 사건도 인류의 발전에 보다 깊은 교섭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도 말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들은 역사적 정확성 여부는 둘째 치고 예수가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이 길에 대하여 한없는 존경과 감사와 경건의 염을 가진 점에서 다른 사람에게 뒤지지 않지만 그러나 이 예루살렘의 고적을 방문하는 것에 무슨 공덕이나 특전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있을 까닭이 없다. 헤딘은 제1유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을 잇는다---“이곳으로부터 그리스도는 일찍이 인간이라는 인간이 걸은 가장 고통스러운 길을 걷기 시작하셨다. 그리하여 2000년 동안 무수한 순례자들이 그 발자취를 뒤따르고 있다.”

그러나 순례자들은 예수와 같은 행로를 걸으면서 실은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는 것이다. 예수는 십자가를 지고 이 길을 걸으셨으나 그들은 그가 십자가를 지신 그 자취를 구경하면서, 라고 하는 말이 적당하지 않으면 고작 “예수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걷고 있다. 예수는 인간을 위하여, 그들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예수는 죽으시기 위하여, 그들은 살기 위하여 걷고 있다. 저는 죽음으로의 행진이고 이는 삶으로의 도피이다. 이를 생각할 때 나는 왠지 모르게 센키빗치의 소설 [퀴바디스]의 장면---네로의 박해를 피하여 로마에서 달아나려 하는 베드로와 또다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 로마에 들어가려는 예수가 아피아 가도에서 딱 맞닥뜨린 장면을 상기한다. 양자는 상행열차와 하행열차처럼 방향이 반대인 것이다.

예수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 하는 자는 자기를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다. 14개의 유소를 걸으면서 기도를 하거나 영가를 부르거나 하라고 하지 않으셨다. 예수의 발자취를 따라 걷는다는 것은 이른바 십자가의 길을 따라서 걷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 자기를 버리는 일이다.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와 연분을 끊고 자기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조차 관심을 갖지 않게 되는 일이다. 난행 고행에 의하여 또는 남이 하지 못하는 것을 해냈다고 하여 특별한 은전에 끼어들려고 하는 그 마음, 그 근성을 우리들은 바리새주의라고 하고 로마 가톨릭주의라고 한다. 특권주의이고 귀족주의이다. 자기중심이다.

예수의 발자취를 따라 걷는다는지 그리스도를 흉내 낸다든지, 십자가를 진다든지,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는지, 하는 말은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답게 들리지만 그러나 세상에 이만큼 추하게 남용된 말은 없으며 이만큼 그리스도의 정신을 거스르고 있는 것은 없다. 호화스런 궁전에서 왕후의 생활

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권화라고 자처하는 자가 있고 수도원에 들어가 독신생활이라도 하면 그것이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밟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가 있다. 십자가를 늘어뜨리거나 꾸벅거리거나 이것에 입맞춤을 하는 사람은 있어도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없다. 수난극을 연출하는 사람이나 관람하는 사람은 있어도 스스로 못 박히기 위하여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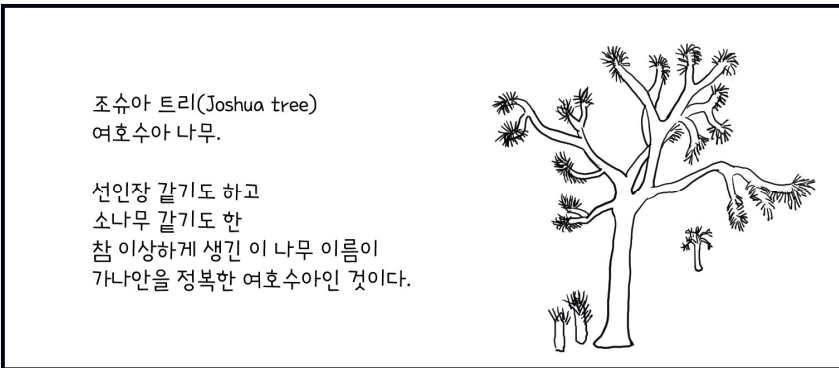
헤딘은 비아 도로로사의 향목을 끝맺으면서 이는 지구상에서 가장 성스럽고 고귀한 그리고 가장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수호해야할 장소인데도 서로 적의를 품고 있는 교회 각파의 교직자들은 이를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리고 이익과 특권의 영역싸움에 골몰하고 있다. 그리하여 이 치고 받고 하는 난장판을 진압하기 위하여 터키의 군대가 그리스도교를 감시 감독하고 있다고 개탄하고 있는데 뿌리가 잘못 되어있으니 악한 열매가 달리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이것이 종교의 보통의 모습이므로 아무런 이상할 게 없으나 다만 그리스도가 이러한 종교를 만들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닌 것만은 분명하다.

거의 시작이라고 하여도 좋을 만큼 오늘날 일본에 그리스도교가 뿌리를 내리려 하고 있다. 모쪼록 이같은 십자가의 길 순례를 고마워하는 그리스도교만은 우리나라에 뿌리내리지 않기를 바란다.

만화로 보는 한 줄 성경

메나리

<한낮의 상상>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사야 65:17)

이런 일 저런 일

1. 메리 크리스마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주께서 강림하신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모두에게 주의 축복이 임하길 기도합니다.

벌써 2024년이 저물어 갑니다. 올 한해도 기도해 주시고 작은 잡지를 읽어 주신 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신앙에 하나라도 도움이 되는 잡지가 되기를 바라며, 새해에도 변함없이 매달 꼬박꼬박 찾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2. 출판 소식

오류동 모임의 최제헌 선생이 “가스펠 팝과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책을 출판하셨습니다. 이 책은 그 동안 오류동집회에서 발표하시고, 본 성서신애에 매월 연재해주셨던 글을 엮은 것입니다.

엘비스 프레슬리가 부른 Crying in the Chapel을 비롯한 16곡을 크리스천의 입장에서 다시 음미해 보는 이야기입니다. 무심코 들었던 노래가 이렇게 깊은 신앙의 외침이었던가 놀라실 것입니다.

yes24를 비롯한 온라인 서점에서도 판매중입니다.

최제헌 지음, 가스펠 팝과 이야기, 바른북스, 17,000원

3. 내년 봄 전국집회 꼭 오십시오

권두문에서 이미 읽으셨겠지만 2025년 봄 집회는 일본에서 오시는 분들과 함께 하는 집회입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날짜는 2025년 4월 26-27일이며, 장소는 충남 홍성입니다.

【 오류문고 안내 】

오류 문고는 기독교 신앙 서적 3,500여 권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기독교 무교회 관련 서적을 거의 모두 찾아볼 수 있는, 작지만 알찬 도서관입니다. 구로구청의 작은 도서관으로도 등록되어 있는 민간 도서관입니다.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 연락처 : 왕정숙 010-8151-1930

☆ 오류문고 인터넷 카페 주소

<http://cafe.daum.net/oryubooks>

【 오류동 성서모임 안내 】

일시 :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 오류문고

(오류역 1번출구 도보 5분)

연락처 : 조규철 010-2228-8200

【 부산 성서모임 안내 】

일시 : 매주 일요일 오전 9시 00분

장소 : 부산시 기장군

연락처 : 손현섭 010-2060-5534



오류문고

구로구 오류동 경인로 8길 75
상가205호(오류동, 삼천리㉔)

성서신애사 연락처 : 손현섭

☆ 010-2060-5534

☆ sonhs0105@hanmail.net

월간 성서신애 제519호 2024년 12월

인	쇄	2024년	12월	1일
발	행	인	손	현
편	집	인	손	현
인	쇄	인	김	진
발	행	소	성	서
신애사				
우 46050 부산 기장군 철마면 중리2길 14-7				
인	쇄	소	신	우
디엔피				